

성도의 벗 12

1989

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교회



성도의 빛

1989년 12월호

교회 잡지인 성도의 빛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에쉬튼, 엘 볼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턴, 리차드 지 스코트

고문 : 맥스 디 페네가, 진 알 쿡, 제프리 알 홀런드, 프란시스 엠 기번스,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통 권 : 제282권, 제25권, 제12호

등록 :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 1989년 12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정 기 만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인쇄인 : 영인쇄주식회사 이 세 용

International Magazine PBMA8910KO

Printed in Korea 12/89

© 1989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4,000원 입니다. 권당 400원이며, 성도의 빛 해외 구독일 경우에는 우송료를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대관장단 성탄절 인사

대관장단 메시지 :

2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8 “우리의 간증을 더합니다.”

방문 교육 메시지 :

15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합당성

17 전쟁 중의 평화.....로버트 케이 힐먼

18 “지혜롭게 순리대로”.....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물문메시지 :

24 기쁨

25 평범하지 않은 아이.....바바라 비 스미스

28 예언자 요셉이 보낸 성탄절.....래리 시 포터

34 질의 응답.....

38 태버네클 안의 참새.....로날드 디 존

세계 청년 축제

훌륭한 청년가 되기 위한 목표

40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42 “진리를 위해 나아가십시오.”.....아데스 지 캡 청년회장

45 첫번째 문.....로버트 에프 잭스

46 “난 예언자를 만난 적이 있어”.....칼라 샌섬

49 매우 중요한 성구.....엘리자베스 카트렐

어린이란

51 새로운 별.....도라 디플렉

54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사상.....그렉 라슨

55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팻 그라함

57 심심풀이 : 삼각형 찾기.....루스 아이먼

짜맛추기.....리지 라타

58 교회 및 지역 소식



대관장단 성탄절 인사

우리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축하는 이 영광스러운 때에 여러분과 더불어 기뻐합니다.

성경과 물몬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거룩한 밤에 하늘에는 약속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떼를 지키던 초라한 목자들은 구세주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들은 최초의 사람들 중 그 몇이었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누가복음 2:10~14)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이 되는 사명은 겸손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를 찾아내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상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한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우리는 가정에서 더욱 온전히 복음대로 생활하고 온 세상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더욱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을 새롭게 헌납할 수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과 감사를 보내며 여러분과 가족 및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성탄절과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새해를 맞이하기를 빕니다.*

대관장단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익명으로 베풀어지는 사랑의 봉사 행위가 인간에게는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서는 그 선물과 주는 사람을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일마 전에 나는 어느 환자를 방문하러 가서 그의 방 호수를
알기 위해 큰 병원의 안내계로 다가갔습니다. 이 나라의
대부분의 다른 병원과 마찬가지로 이 병원 역시 확장
일로에 있었습니다. 안내계원이 앉아 있는 책상 뒤에는 이와
같은 확장을 가능하게 해준 기부자들에게 감사문을 새긴 훌륭한
장식판이 있었습니다. 십만불을 기부한 자들의 이름은 유려한
필체로 새겨져 각 이름이 본래의 큰 장식판에 빛나는 사슬로
매달린 각각의 동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부자의 명단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계의 지도자, 산업계의
거물, 학식이 높은 교수들의 이름이 모두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선전 덕행에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나의
시선이 다른 동판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는 아무 이름도
적혀있지 않았으며 다만 “익명”이라는 한 마디 밖에는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가 누구일까
궁금하게 여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조용한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내 생각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성지로 향했으며, 이
성탄절에 특별히 기억에 떠오르는 그분에게 향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특별히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베푸는 행위의 참된
정신에 대해 가르치시고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 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야(마태복음 6:1, 3)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이 거룩한
진리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려는
듯이, 주님은 많은 무리를 뒤따르게 하시며 산에서 내려
오셨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대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말고”(마태복음 8:2-4)

거기서 익명이라는 말은 귀중한 의미가 있었으며 지금도 역시
그러합니다. 웅장한 원앙 여객선 루시테이니아 호가 1915년에
대서양의 바닥에 침몰되었을 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죽어간 사람들의 용기있는 많은
행위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루시테이니아 호와 함께 침몰된
한 사람은 전혀 수영을 못하면서도 자기의 구명구를 어떤
부녀자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미국인 억만 장자 알프레드
밴더빌트였다는 사실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세상의 보물을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준 것입니다.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지나 다른 보석들은 선물이
아니라 선물에 대한 명색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물은 다만 자기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선물”, 랄프 왈로 에머슨의 전집에서,
뉴욕: 윌리엄 에이치 와이슨 앤드 컴페니, 1929년, 286페이지)



이러한 것은 주를 위하여
 행한 것이니 주께
 감사하라 하였으니
 주께 감사하는 것은
 주께 감사하는 것이니

이러한 것은 주를 위하여
 행한 것이니 주께
 감사하라 하였으니
 주께 감사하는 것은
 주께 감사하는 것이니
 주께 감사하는 것은
 주께 감사하는 것이니
 주께 감사하는 것은
 주께 감사하는 것이니
 주께 감사하는 것은
 주께 감사하는 것이니

“한 문둥병자가 나아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대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마태복음 8:2~4)

Robert T. Barrett

휠체어에 앉아 있는 환자가
 춤다고 말을 하자 성찬을
 준비하고 있던 한 청년이
 그의 걸음을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습니다.

몇 년 전에 최신식의 제트 여객기 한대가 이륙 후에
 비틀거리더니 얼음에 덮인 와싱턴 디시 근처의 포도맥 강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수많은 용감한 행위와 영웅적인 공훈이
 눈에 띄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것은 구조 헬리콥터
 조종사가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구조 밧줄이 허우적거리는
 생존자들에게 내려졌습니다. 한 남자가 자기에게 내려진 안전한
 생명줄을 잡아 그 줄을 다른 사람에게 메어 주었으며 묶인
 사람은 무사히 끌어올려졌습니다. 밧줄이 다시 내려 왔으나
 이번에도 다른 사람이 구해졌습니다. 얼음물 속에서 다섯
 사람이 구조되었으나 그 중에는 익명의 영웅을 끝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그 사람은 밝은 창공에
 명예를 남겼습니다.”(스티븐 스펀더, “언제나 그들은
 생각한다.” 종교사의 걸작선에서, 제임스 델튼 모리슨 편,
 뉴욕 : 하퍼 앤드 브라더스 출판사, 291페이지)

사람이 죽어갈 때에만 참된 선물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지킴을 보여줄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약하여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어느 겨울 아침에 아버지는 조용히 그의 두 아들을 깨우고
 속삭였습니다. “애들아, 어제 밤에 눈이 내렸구나. 옷을 입고
 날이 밝기 전에 이웃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내린 눈을
 치우자꾸나.”

세 사람의 일행은 따뜻하게 옷을 입고 어둠 속에서 여러
 집으로 들어 가는 길목의 눈을 치웠습니다. 아버지는
 소년들에게 한 가지 주의를 주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해라. 누가 그들을 도와 주었는지 모르도록 말아야.” 여기에도
 익명이라는 말이 적용됩니다.

2. 어느 양노원에서 두 청년이 성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휠체어에 앉아 있는 한 노인 환자가, “아이 추워”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중의 한 청년이
 그녀에게로 걸어가 자기의 상의를 벗어 그 환자의 어깨에 걸쳐
 주고 어깨를 다정하게 도닥거리려 준 다음 성찬 테이블로 되돌아



왔습니다. 이윽고 성찬이 축복되고 모인 환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나는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님이 오늘 여기에서 한 행동을 나는 오래도록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상의를 입지 않으면 성찬을 축복하는 데 합당한 복장이 되지 않을까 하여 걱정되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형제님보다 더 합당한 복장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도 익명의 존재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3. 동독에서 나는 소수의 회원들과 함께 조그만 공동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때는 어두운 밤이었으며 하루 종일 찬 비가 쏟아진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해 전에 주님의 사업을 위해 봉사하다가 죽은 한 선교사의 무덤을 찾아 보러 온 것입니다. (성도의 빛, 1989년 5월호, 7페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참조) 우리가 무덤 주위에 모였을 때 고요한 정적이 그 자리를 감쌌습니다. 묘석을 비취주는 회중 전통 불빛으로 나는 그 비문을 읽었습니다.

조셉 에이 오토

1870년 12월 12일 유타주 버진에서 출생

1896년 1월 10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사망

그때 그 불빛으로 이 무덤이 공동 묘지의 어느 무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리석으로 된 묘석은 윤이 나게 닦여 있었고 다른 무덤을 덮고 있는 잡초도 없었으며 잔디가 깨끗하게 정돈되었으며 정성이 한아름 담긴 아름다운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누가 이 무덤을 이렇게 보기 좋게 가꾸어 놓았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나의 물음에 침묵만 흘렸습니다.

마침내 열 두 살된 집사가 이 알려지지 않은 친절은 부모나 지도자들이 권유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원하여 그렇게 해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사업을 위해 봉사하다가 생명을 바친 선교사를 위해 무엇인가 해주고 싶었을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비밀을 지켜 주어 그의 선물이 익명으로 남아 있게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마 내가 읽은 어떤 작품도 주님의 이 가르침을 헨리 반 다이크의 불후의 작품 “저택”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기억에

위를 올려다 보며 이웃에게 봉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세주의 가르침의 메아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갈릴리를 향해 귀를 기울이도록 합시다.

남고 아름답게 잘 표현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전 작품에는 부자이며 정치 권력의 시행자이고 훌륭한 시민인 존 웨이트먼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선에 대한 그의 철학은 그의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떻게 줄 것인가를 세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닥치는 대로 주어서는 안되며 거지의 모자에 돈을 넣어 주어서도 안됩니다. 확인될 수 있고 주위 모든 것에 이익되는 일에 기부를 하십시오.” (“저택”, 알려지지 않은 낭만적인 이야기”, 뉴욕, 스크라이브너사, 1919년 337, 339페이지)

어느 날 저녁 존 웨이트먼은 그의 서재의 안락 의자에 앉아 앞의 책상에 펼쳐진 신문을 찬찬히 훑어 보았습니다. 기사에는 웨이트먼 중학교의 개교에 관한 기사 뿐만이 아니라, 병원의 웨이트먼 익벽의 사진과 설명, 그리고 정치 법률, 학계의 웨이트먼 의장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존 웨이트먼은 만족했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놓여 있는 가족 성경을 집어 들고 한 구절을 펴서 혼자 읽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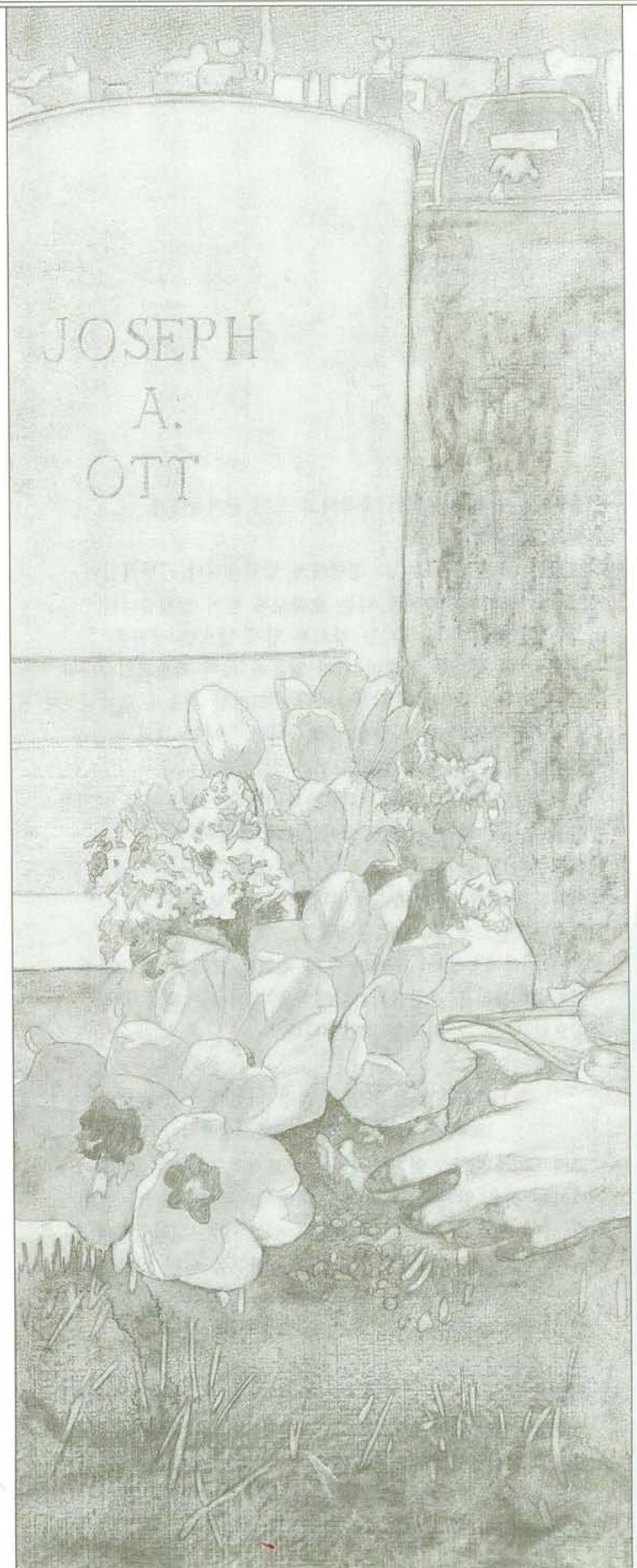
대리석으로 된 묘석은
 윤이 나게 닦여져 있었고
 무덤의 잡초도 깨끗이
 제거되었으며 아름다운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마태복음 6:19, 20) 그 책은 그에게서 스스로 빠져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기대 각지킨 손에 머리를 대고 깊은 잠에 빠져 들었습니다. 꿈에서 존 웨이트먼은 하늘 나라의 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안내원이 그와 또 그가 이 세상에서 알았던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그들을 하늘 나라의 집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대 저택 앞에 잠시 멈추어 안내원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맥린 박사님, 이곳은 당신을 위한 집이니 들어 가십시오. 이곳은 병이나 죽음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옛날 적들이 모두 정복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여기에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푼 모든 도움과 당신이 가져온 모든 안락함과 당신이 고통받은 자들에게 준 모든 힘과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이 저택 안에 그것들을 모두 마련하였습니다.”(“저택” 361~62페이지)

병약한 아내의 헌신적인 남편에게는 아름다운 저택을 보여 주겠으며, 일찍 미망인이 되어 가족을 훌륭하게 기른 어머니와 30년 동안 침대에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희망도 없이 누워 있던 불수의 젊은 여인에게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이 젊은 여인은 결코 불평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기쁨과 화평을 자기 곁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겠다는 일념을 목표로 하여 용기라는 기적의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존 웨이트먼은 자기에게는 어떤 저택이 기다리고 있는지 보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그와 문지기가 계속 걸어가는 동안 집들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황량한 벌판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겨우 목동의 피신처나 될 정도의 오두막집을 보았습니다. 안내원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존 웨이트먼씨, 이것이 당신의 집입니다.”

절망에 빠진 존 웨이트먼은 “당신은 내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의 익벽과 또 교회를 세 군데나 세웠다는 것을 듣지도



못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잠깐만요.”라고 안내원이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꿈에서 존 웨이트먼은 하늘 나라의 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안내원이 그와 또 그가 이 세상에서 알았던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그들을 하늘 나라의 집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세상에서의 존 웨이트먼의 명성과 저택을 위한 기반으로 이용되고 표시되었습니다. 참으로 당신은 그 보상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두 번이나 받으려 합니까?”

한층 더 큰 슬픔으로 인해 현명해진 존 웨이트먼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지요?” 그 대답은 이렇었습니다. “다만 참되게 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생각하신 대로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 계획하는 것입니다. 보상보다 더 큰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는 사람이 스스로 잊어버리는 선물입니다.”(“저택” 364~68페이지)

존 웨이트먼은 일곱 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그는 밤중 내내 잠을 잤던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그에게는 아직 더 살 수 있는 인생과 나누어 줄 사랑과 전해줄 선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좋은 울리지 않으면 종이 되지 못하며,
노래는 부르지 않으면 노래가 되지 않는다.
네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을 그대로 적어 두지 말라
사랑을 내어 주지 않으면 결국 사랑이 되지 못한다.
(리처드 로저스 앤드 오스카 햄머스파인 2판, “열 여섯에서 열 일곱으로”)

이 진리가 우리 생활의 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를 올려다 보며 이웃에게 봉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세주의 가르침의 메아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갈릴리를 향해 귀를 기울이도록 합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마태복음 6:1)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마태복음 6:3)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말(라)”(마태복음 8:4)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가벼워지고 우리의 생활은 더욱 밝아지고 우리의 영혼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익명으로 베풀어지는 사랑의 봉사 행위가 인간에게는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과 주는 사람을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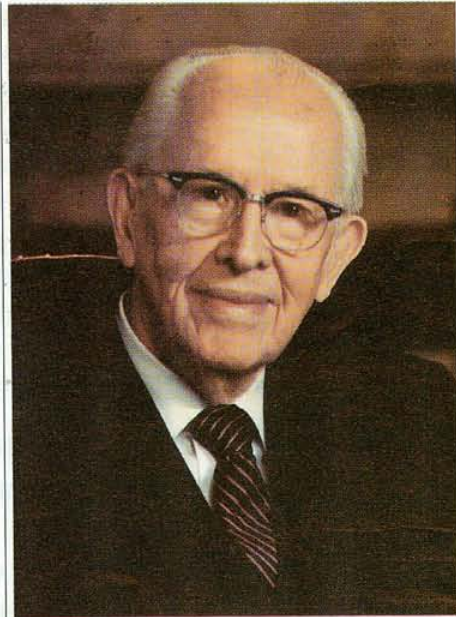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구세주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마태복음 6:1)고 말씀하시면서 베풀어 주는 참된 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사건이 구세주의 제자들의 영혼에 그 가르침의 진리를 깊이 새겨 주었습니까?
2. 우리는 일상 생활을 하면서 그 “신성한 진리”를 적용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3. 우리는 “알려지지 않는 친절”을 우리가 받게 될 “저택”을 위해서 베풀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봉사의 기쁨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4. 익명으로 베풀어진 사랑의 봉사 행위는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을지 모르나 누구에게 알려지겠습니까? *

“우리의 간증을 더합니다”

물몬경에 대한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나**는 교회 전체가 물몬경에 나오는 계율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나는 물몬경으로 온 지상이 차고 넘치는 것을 봅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1988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말씀했다. [성도의 빛, 1989년 1월호, “은 지상이 물몬경으로 차고 넘침.”]

물몬경에 대한 벤슨 대관장의 사랑은 대관장단에 있는 그의 보좌와 십이사도에 의해서도 나타난다. 다음은 이 “가장 정확한 책”에 대한 그들의 말씀이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물몬경은 두 가지 기본적인 방법을 통하여 인간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첫째, 이 책은 단순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그분의 신성과 구속주의 필요성과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할 것에 대하여 간증합니다. 타락과 구속을 증거하는 외에도 또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지닐 필요성을 포함한 복음의 첫째 원리와 영적인 거둬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의 가운데 끝까지 참으며 성도로서 도덕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물몬경은 그리스도의 적들을 노출시킵니다. 그릇된 가르침을 뒤집어 엎으며 논쟁을 잠잠케 합니다. (니파이이서 3:12 참조) 겸손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강화시켜 오늘날 악마의 사악한 계획과 술책과 교리에 대항하게 합니다. 물몬경에 나오는 배도의 형태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배도의 형태는 비슷합니다. 영원히 미리 아시는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물몬경의 형태에 영감을 미쳐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고 우리 시대의 그릇된 교육, 정치, 종교, 철학 개념에 대항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도의 빛, 1988년 5월호, “물몬경은 하나님의 말씀”)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이 책(물몬경)일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첫번째 시험을 의심하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비평가들은 이 책의 출현에 따르는 모든 신성한 계시를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 이외의 다른 것에 의하여 이해될 수 있는 것처럼, 이것들이 실용주의자들에 의해 증명될 수 있는 것과 같은 분명한 것이 아니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학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 속으로는 물몬경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만져볼 수 있으며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책의 내용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을 증거합니다.”[대회 보고, 1959년 10월, 118페이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수년 전에 나는 사경을 헤메고 있는 두 자녀의 아버지인 젊은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나의 눈을 바라보면서 애원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나는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나는 그의 침대 옆의 탁자에 놓여 있는 물몬경에 눈길이 갔습니다. 내가 그 책을 들었을 때 엘마서 40장이 펼쳐졌다는 것을 확실히 간증합니다. 나는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아들이, 내가 네게 전하고자 하는 바가 더 있으니,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내가 마음으로 염려하고 있는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죽음과 부활 사이의 영혼의 상태에 관하여 내가 아는 바는 이러하니, 보라 천사가 내게 일러 주셨으되 모든 사람의 영이 그의 죽어야 하는 육신을 떠나면 그 모든 영들이 착하든지 악하든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의로운 영들은 안식과 평화의 처소인 낙원이라 하는 행복한 곳으로 영접되어 고난과 근심과 슬픔을 잊고 편히 쉴 것이나’(엘마서 40 : 1, 11~12)

“그 젊은 친구는 눈을 감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시하면서 조용히 우리가 말하고 있던 낙원으로 들어 갔습니다.”(성도의 빛, 1982년 4월호, “그가 살아 나셨습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대로 이 세상에 살았던 예언자들의 수많은 간증의 힘과 능력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소식이란 신세계에 살았던 예언자들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것에 관한 통찰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 이미 이해하고 있는 것과 일치되며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확고한 간증을 더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몰몬경을 잘 알지 못하나 성실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몰몬경은 그들의 생활에 깊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하여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며 또한 그들은 그들의 복음의 가르침과 일치하게 살고자하는 더

큰 소망을 갖게 될 것이며 또한 예수님에 대한 강한 간증을 얻게 될 것입니다.”(성도의 벗, 1983년 7월호, “부활의 증거”)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 :

“선교사도 회원도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없으며 십이사도 대관장도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책의 기술된 것과 같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몰몬경을 읽은 후에는 그 책이 참된지에 대해서 그 책에서 처방한 대로 주님께 여쭙어 볼 자격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정하신 대로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나는 몰몬경이 진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임을 증거합니다. 나는 보잘 것 없는 군인으로서 진지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몰몬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내 영혼의 일”)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

“최근에 교회에 새로 개종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나의 침대의 대부분을 감방에서 지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음식은 상당히 좋았고 후한 대접도 받았기 때문에 사정은 그다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꼭 지루했으므로 누가 읽을 거리나, 재미있는 책, 잡지 또는 어떤 것이든 갖고 있다면, 기회있을 때마다 먹을 것을 주고 그것을 빌려 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두꺼운 좋은 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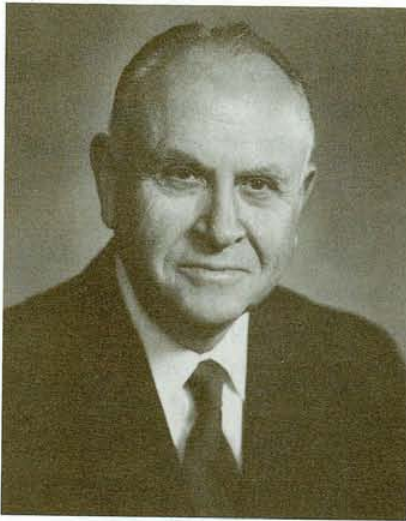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내가 일주일 동안 먹을 돼지고기, 토마토 및 기타 식품들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내게 그 책을 빌려 주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아주 특별하고 참된 것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먹을 것을 주고 빌려 본 책은 물론경이었습니다. 나는 기회가 와서 선교사들을 찾았고 내 습관을 바꾸어, 이제는 내 생활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먹을 음식과 바꾼 책을 사랑합니다.”(성도의 벗, 1981년 10월호,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섬깁니다.”)



엘 톰 페리 장로 :

“약 일천 년 간의 인류 역사를 담고 있는 위대한 고대의 기록인 물론경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특별한 안목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민족이 주기적으로 의롭게 되었다가 의로움에서 멀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의 왕국을 건설하기를 소망하는

데서 나오는 단합을 봅니다. 또한 우리는 백성의 마음이 이기적인 욕망과 욕신의 쾌락과 세사적인 부를 추구할 때 결과되는 분쟁을 봅니다.”(성도의 벗, 1987년 7월호, “단합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함”)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

“물론경은 호기심으로 인해 세상에 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목적, 다시 말씀드려 모든 독자가 느껴야 할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표제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쓰여진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내어 보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느니라” 이 책은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담고 있으며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이 책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고대 미대륙을 방문하셨음을 말해 주며 그가 큰 권세로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주시는 가르침과 지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경은 성경에 있는 구세주의 가르침을 입증해 주며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 주고 우리의 구세주께서 인류의 구속주요 속죄자임을 가르쳐주며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중심 인물임을 강조합니다. 이 신성한 기록은 사람들을 그 메시지와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로 개종시킵니다.”(“요셉 스미스 : 예언자” 브리검 영 대학교 1985~86년 노변의 밤 영적 말씀, 프로보, 유타, 브리검 영 대학교, 96페이지)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

“얼마 전에 나는 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는 책을 만져 보았습니다. 그것은 손때묻은 아주 오래 된 물문경이었습니다. 페이지마다 표시가 되어 있었고 소중하게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페이지는 책장의 모서리가 접혀지고 표시는 얇게 닳아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책 보다도 물문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말해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하나님께 가까이 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물문경을 읽고 연구하며, 그 책에 관해 기도하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책을 손에 들고 어머니가 것처럼 사랑하시며 큰 간증을 품고 계시던 물문경의 진실함을 어머니의 눈을 통해 찾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물문경이 마치 노력없이 얻어지는 유산처럼 내게 그 깊은 뜻을 전해 준 것은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이 성실한 마음과 강한 뜻을 가지지 않고서 이 위대한 책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참된 것인지를 간구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어머니가 그녀의 다 떨어진 물문경에서 찾아내실 수 있었던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물문경의 진실함을 찬양하며 보다 강한 간증을 갖고 살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우리 종교의 종석이 이 지상에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온 세상에 귀중한 진리를 담고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성도의 빛, 1984년 1월호, “우리 종교의 종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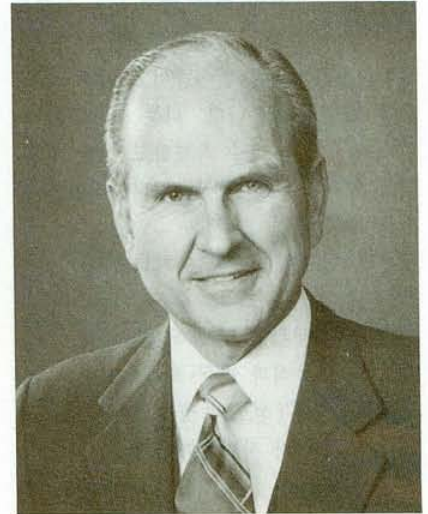
닐 에이 맥스웰 장로 :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서반구에 나타나셨을 때에 관하여 예언자 요셉이 묘사한 글에는 신학과 아름다움이 함께 어우러져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같이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께서도 친히 땅에 무릎을 꿇으시고, 보라 아버지께 간구하시었으니 이제 그 간구하신 대로 날날이 기록하지는 못하나...

“아무도 이를 말하거나 기록할 자가 없었고, 우리가 친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보았으나 심히 크고 놀라웠던지라, 아무도 이를 감당치 못하였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실 때 우리에게 차고 넘치던 기쁨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느니라”(니파이삼서 17 : 15~17)

“축복받은 물문경을 진지하게 연구해보면 그 책이 단순하면서도 복잡함과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진 경이로운 세계로 인도되며 능력있고 영적인 것이 반복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받으면서도 더 많은 것을 간구하게 됩니다.”(성도의 빛, 1984년 1월호, “선전자 요셉”)



러셀 엠 넬슨 장로 :

“내가 와싱턴 디시에 있는 왈터 리드 육군 병원에 근무할 때 동료 가운데 함께 일하던 한 부부가 내게 물문에 관해 물어 보았습니다. 나는 배경에 대해 간단히 말해 준 뒤 나의 물문경을 빌려 주었습니다. 약 일주일 후에 그들은 책을 돌려 주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나는 ‘고맙다니요? 무슨 뜻이지요?’하고 물었습니다. 이 책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것이 부적당한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 책을 다 안 읽으신 모양이군요. 다시 가져다가 읽어 보십시오. 다 읽으신 뒤 여러분이 느낀 바를 알고 싶습니다.’

“그들은 책장을 몇 페이지 들추어 보았을 뿐이라고 시인하면서 다시 가져갔습니다. 3주 쯤 후에 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 책을 갖고 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책을 읽으셨군요. 이제 그 다음의 일을 계속합니다.’ 때가 되어 그들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론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다른 증거로서 위대한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경의 존재에 대해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설명한 것 이외의 설명이 없습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

“주님께서서는 물론경이 다른 어떤 경전보다도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이 더욱 분명하게 수록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교성 20 : 8~9, 27 : 5 참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도전하거나 그의 속죄와 부활의 실재를 의심하고 있는 오늘날 두번째 증거, 즉 물론경의 메시지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에зра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물론경이 ‘우리 시대를 위해’ 쓰여졌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식’이라는 사실을 거듭해서 상기시켰습니다. (연차 대회 1986년 10월)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언자로 하여금 우리에게 물론경을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지시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세대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물론경의 메시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벤슨 대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론경은 ‘속죄의 교리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해 주며 주님에 대한 이 경전의 간증은 분명하고 순수하며 힘으로 가득차 있습니다.’”(연차 대회, 1986년 10월호) (성도의 벗, 1989년 1월호,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엠 러셀 벨라드 장로 :

“물론경은 내가 아는 어떤 책보다도 실제적인 인생의 문제에 대해 해답을 주는 가장 훌륭한 책입니다. 나는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할 때 어린 아들이 예기치 않게 죽어 슬픔에 잠긴 비회원 가족을 방문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속해있는 교회의 목사는 그들에게 이제 그 아들은 침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나의 동반자와 나는 그곳에 당도하여 어린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커다란 슬픔에 젖어 있는 것을 보고는 모로나이서 8장 8절을 그 어머니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니 주가 되시며 구속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지어다. 보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함이라. 성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이라. 그러므로 죄가 어린 아이들을 사로잡지 못하는지라 아담으로 인한 저주가 나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에게서 씻겨졌고 할례의 법이 또한 나로 인하여 다하였도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으며, 슬픔을 위로해 주는 평화가 찾아 왔습니다.

“인생의 문제로 고심하는 사람들이 물론경을 읽었을 때 얼마나 많은 경우에 평화를 얻었습니까! 이 책을 통해서 영적인 인도를 받은 예가 무수히 많습니다. 물론경에 대한 나의 사랑은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책에서 새로운 빛이 내게 발산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신성하고 특별한 책을 사랑합니다.”



조셉 비 워스린 장로 :

“다행히도 나는 어렸을 때 물몬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부모는 이 책을 몹시 사랑하셨으며, 가정에서 우리 각자가 복음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주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물몬경을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선교 사업을 할 때 매일 나의 물몬경을 사용했습니다. 나에게 많은 것을 의미하는 이 책은 나의 변함없는 동반자였습니다. 이제 그 가죽 표지는 닳았으며 책의 모서리는 남아 떨어졌습니다. 내용을 다시 읽기 위해 책을 펴면 나의 마음은 니파이 민족과 레이멘 민족과 야렛민족의 예언자가 전한 영감받은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침대에 처음으로 읽었을 때 발견한 말씀은 얼마나 감동적이고 신성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소중한 영적인 가르침으로부터 내가 이삭을 줍듯이 모든 지식은 오늘날 나에게 더 큰 의미를 줍니다. 우리의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가 강조한 이 책은 나에게 더욱

큰 의미를 줍니다.

“나는 교회의 모든 회원이 빠짐없이 이 신성한 경전을 읽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복음에 대한 더 자세한 지식을 알려줄 것입니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

“멕시코 성전이 헌납되는 동안, 나는 인생의 과정을 다시 잡게 하는 특별한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멕시코나 중미의 많은 남녀 지도자들이 참석한 여덟번째 헌납식에서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말씀을 부탁받은 나는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강한 느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나는 새 시대의 장을 여는 기반을 세우기 위해 봉사하고 고통받으며 아낌없이 바쳐 예언을 성취시킨 장막 저편에 계신 분들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나는 물몬경의 성스러운 기록들을 준비하고 보호해 준 과거의 예언자들이 간청하는 듯한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분들이 우리가 물몬경을 팔 밑에 끼고 이리 저리 다니는 것을 보고 또는 집에서 물몬경에 만지만 쌓이도록 놓아둔 채 책장을 열어 읽고 생각하거나 그 내용을 생활에 적용시키지도 않는 것을 보며 슬퍼함을 느꼈습니다.

“물몬경에는 거짓 가르침의 영향력을 어떻게 바로 잡고 어떻게 인생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해 성스럽게 주어진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물몬경은 주님께 의해 예언되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책에서 주님은 인생의 중대한 잘못을 바로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물몬경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간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그 진실함을 알고, 그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시키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나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크나큰 사랑을 느꼈으며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성도의 벗, 1989년 1월호, “참된 친구”)*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합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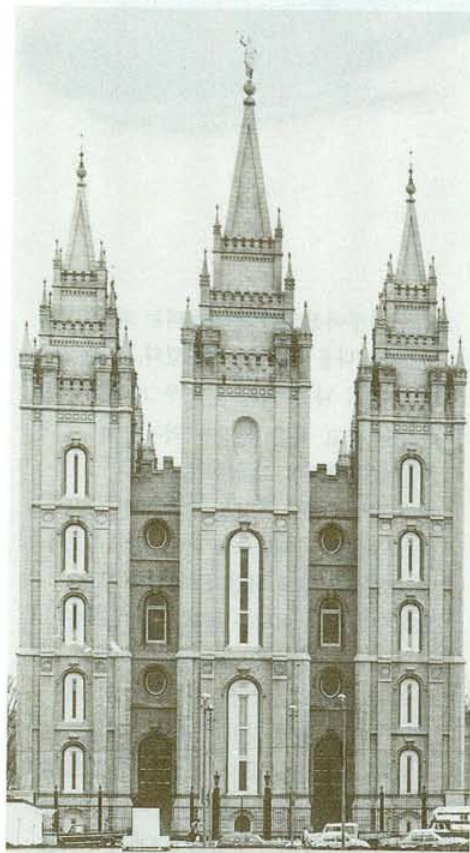
목적 : 자매들이 성전 의식을 받고 죽은 자를 구속하는 일을 돕기에 합당하도록 격려하기 위함.

“**주**님의 집”. 이 말은 모든 성전 밖에 새겨져 있다.

주님께서서는 이 거룩한 건물 내에 몸소 거하시든가 혹은 그분의 영이 거하셔서 그의 백성에게 계시를 주실 것이다.

성전은 가르침과 결실과 봉사와 영적인 모임의 장소이다. 그곳은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구원에 필요한 많은 의식을 받는다. 엔다우먼트와 성전 인봉 의식에서 우리는 주님과 신성한 성약을 맺고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는다. 우리는 또한 성전에서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의식을 받는다.

성전 의식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우리는 모두 성전 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다.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아직 받지 않은 자매들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을 수 있다. 독신 자매들은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거나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성전 밖에서 결혼을 한 자매들은 감독이나 지부장의 추천을 받고 남편의 동의를 얻으면 성전에 갈 수 있다. 그들은 또한 가족이 성전에서 인봉받도록 격려할 수 있다. 성전 의식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맺은 성약을 존중하도록 매일 노력해야 한다.



성명을 제출하고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을 행하기 위해 성전을 방문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십이사도 평의회와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 와드 가족 역사 상담자, 가족 역사 도서실 봉사자, 자료 입력, 성명 초출, 의식 봉사자 등은 모두 죽은 자를 구속하는 일에 도움을 준다. (옥스 장로의 “지혜롭게 순리대로” 참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참여할 준비를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의 영을 느낄 수 있다는 강한 간증의 축복을 받게 된다. 우리들 가운데 아직 성전 의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자의 구속에 관련된 활동과 앞으로 의식을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써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방문 교사를 위한 제언

1.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가 성전에 방문하는(둘 중 누군가가 방문했을 경우) 것에 대한 또는 성전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것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한다.
2.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가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권유한다. *



나는 2년 동안 베트남에서 미육군으로 복무했다. 베트남에는 두 종류의 계절이 있다. 하나는 덥고 건조한 계절이요, 다른 하나는 덥고 습기찬 계절이다. 이날 아침은 지난 몇 주 동안의 다른 날과 다름없이 덥고 끈적거렸다. 나는 얇은 참호에 앉아 있었으나 너무나도 피곤해서 진흙이 군화 속으로 들어오거나, 나의 발 주변에 고여 있는 피로 얼룩진 물의 악취를 상관할 수도 없었다. 땀은 이마로 쏟아져 내리며 셔츠를 적셨다. 찌는 듯한 더위로 호흡조차 곤란하였다.

나는 지난 3주 동안 순찰 작전에 참여하였다. 나는 생존해 있는 동료들과 함께 우리를 본부대까지 다시 데려 갈 헬리콥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지난 수 일 동안 있었던 일들 즉 죽은 친구들, 부상자들의 고통, 만사에 지쳐버린 나에 대해 생각했다. 우리는 여러 주 동안 계속 순찰을 돌면서 낮에는 적을 뒤쫓고 밤에는 그들이 우리를 찾아 나서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러나 그들은 밤이면 항상 나타났다.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갈 때면 나는 본능적으로 참호 속으로 몸을 더 낮게 웅크렸다. 적의 저격병이 사격을 시작했으므로 부주의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우리의 보초들이 정글을 잘 살펴 보았지만 적군이 있는 곳을 찾아내지 못했다.

헬리콥터의 요란한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더니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세 대가 착륙했다. 헬리콥터에 달린 기관총이 엄호 사격을 가했다. 교대를 위해 온 새로운 병력이 부상자를 태우는 동안 헬리콥터에서 내리 참호로 들어 왔다. 교대는 불과 수초

내에 이루어졌으며 헬리콥터는 떠나가 버렸다. 다음 차례는 우리였다. “조금만 더”하면서 나는 일어서서 쭈그리고 있던 다리를 펴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며 자신에게 말했다. 속삭이는 대화와 이따금씩 들리는 총성을 제외한 정적 속에서 나는 누군가 휘파람으로 귀에 익은 곡조를 불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저것이 무슨 노래지? 노래 소리를 듣자 나는 두려움이 가라 앉고 전쟁마저 잊혀지는 듯했다. 나는 주의 깊게 들으면서 주위를 살펴 보다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는 한 병사를 보았다. 그의 명찰을 잘 볼 수는 없었으나 방금 도착한 부대 소속의 사병이었다. 그는 휘파람을 계속해서 불었다. 그제서야 나는 그 곡조가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찬송가 6장)임을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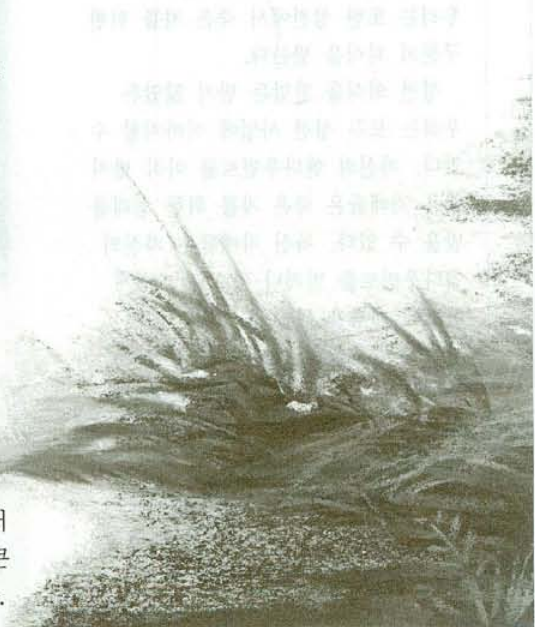
나는 재빨리 그에게로 기어가서 혹시 말일성도가 아닌지 또는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렇다고 했다. 나는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다. 나는 몇 달 전에 사이공 지부에 참석한 이래로 교회 회원을 아무도 만나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 성찬을 축복하기에 합당한가를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나는 시계의 날짜판을 보고 알 수 있었다.

나에게는 군용 레이션 비스킷과 한 강통의 물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성찬 집행을 도와 주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우리는 참호에서 기어나와 다른 군인들이 보이지 않는 키가 큰 풀과 대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들어 갔다.

나는 주머니에서 입대할 때 감독이 준 군인용 복음의 원리를 꺼내었다. 나는 헬멧을 벗어 뒤집어 놓아 성찬대를 만들고 그는 주머니에서 깨끗하고 하얀 손수건을 꺼내어 성찬보로 사용했다. 나는 동반자와 함께 진창에 무릎을 꿇고 비스킷을 풀어 자른 뒤 축복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그는 총을 들고 정글을 살폈다. 우리는 각자에게 전달을 했다. 그런 뒤 그는 총을 내려 놓고 내가 땅을 보는 동안 물을 축복했다.

내 생애에 그때의 성찬 빵처럼 달고 그물처럼 깨끗했던 적은 없었으며, 나의 영혼이 그 때처럼 성찬 의식에 의해

내 생애에 그때의 성찬 빵처럼 달고 그물처럼 깨끗했던 적은 없었으며, 나의 영혼이 그 때처럼 성찬 의식에 의해 강화된 적은 없었다.



전쟁 중의 평화

로버트 케이 힐먼

강화된 적은 없었다. 우리는 악수를 하고 재빨리 참호로 되돌아 왔다. 곧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으며 나는 일어서서 동료들과 헬리콥터가 있는 곳으로 뛰어 갔다. 나는 뒤를 돌아다 보았다. 두려움이 사라졌다. 복음 안에서의 나의 형제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는 헬리콥터에

탑승했으며 우리는 떠났다.

나는 그의 이름을 묻지도 않았으며 그도 나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영원토록 지속될 관계를 맺었다. 교회의 형제 한 사람이 전쟁의 공포와 절망 속에서 나의 영혼을 구해 주었던 것이다. 정글 속에서 성찬을

취한 일로 해서 나는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

복음의 의식을 통하여 우리는 평화를 찾았다.*

로버트 케이 힐먼은 시트라스 하이츠 캘리포니아 스테이크, 시트라스 하이츠 제8와드에 거주하고 있다.



“지혜롭게” 순리대로”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가 죽은 자를 구속하고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헌신과 제자됨을 나타내 줍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사업과 영광은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서 1:39) 인간의 불사 불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로 인해 확실해졌습니다. 우리는 각자 인간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나머지 일들이 행해지도록 돕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노력은 세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일,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및 죽은 자를 구속하는 일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세 분야는 서로 맞물려 있어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말일성도가 자신의 의식을 받고 조상을 위해 영원한 의식을 마련해 주도록 권고하는 일반적인 원리 및 가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산 자와 죽은 자의 구원에 필요한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가족 역사 사업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앙개조 제3조)

첫째 원리는 우리가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쏟는 노력은 주님의 사업을 성취하는 것이어야 하며 주님의 자녀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에 그 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인해 죄의식을 느끼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회원들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즉 연령, 건강, 교육, 거주지, 가족으로서의 책임, 재정적인 여건, 개인 및 도서관 탐구 자료 활용 가능성 및 기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회원들에게 이러한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 일을 하라고 촉구한다면 일을 진척시키기보다는 그들에게 죄책감만 더해줄 것입니다.

둘째 원리는 우리가 죽은 자를 구속함에 있어서 수행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며 모든 회원들은 특정한 시간에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함으로써



이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의 영의 속삭임에 따라, 그리고 가족 역사에 관한 책임을 맡아 봉사하도록 부름을 주고 교회에서 관리하는 이 사업의 일부분을 지도하는 신권 지도자의 인도에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하도록 강력히 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를 구속하고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름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일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주님에 대한 신앙과 그분의 제자로서의 도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희생하고 봉사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먼저 성명을 제출하고 성전에 가서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의식을 행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는 훨씬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워드 가족 역사 상담자, 기록 센터에 있는 선교사, 마이크로 필름을 작성하는 데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도서관, 자료 입력 및 성명 초출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 선교사, 의식 봉사자 서기 및 안내자도 있습니다. 또한 성전의 부엌, 세탁장 및 유아실에서 보이지 않게 조용히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 뒤에는 도움과 격려를 주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를 돌보아 주는 청녀나 성전에 참석하는 사람을 위해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은 그들도 성전 사업을 위해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의 일부분은 가정에서 행해집니다. 나는 가족의 계보를 최근의 것까지 보관하는 일과 모든 인봉 의식이 다 마쳐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중요성에 관해서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집에서 우리는 일지를 작성하고 가족의 기억의 책을 위한 사진과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존하는 친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 훌륭한 교훈을 자녀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훌륭한 사업의 일부가 우리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가정은 가족들에게 영원한 가치 기준을 가르쳐 주는 가장 효과적인 곳입니다.”(“영속적인 가족 관계의 원리”, 성도의 빛, 1983년 1월호, 89페이지) 교회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노력 중에는 부모가 가르침과 모범으로서 자녀에게 교회의 교리와 복음 원리의 적용을 가르치는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가르치는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젊은 부모는 가족 기록서를 많이 제출하지 못했거나 이미 은퇴한 그들의 부모들 처럼 자주 성전에 참석하지 못한다 하여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회원들은 실제로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면서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죄의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죄책감은 불충분한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충분한 관점에서 옵니다. 예를 들면 어린 자녀를 여러 명 둔 어머니는 자녀들이 선교 사업을 준비하도록 도와주며 그들이 성전을 존중하도록 가르치고 그곳에서 성약을 맺도록 준비시키며 그들이 각자 일상 생활에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때 가정에서 교회의 세 가지 사명을 촉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원리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를 온전케하며, 죽은 자를 구속하는 사업을 공식적으로 표명된 교회의 사명으로서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과제로써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회원은 현재 자신의 상황과 자원의 한계 내에서 전심으로 이 세 가지 사명에 대한 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교회 사명의 세 가지 분야는 서로가 겹쳐서 관련이 있으며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전에 함께 가자고 권고하는 사람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동시에 죽은 자를 구속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성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집에서 개인적인 교제와 영에 의해 강화될 것입니다. 성인 회원들은 그들이 성전 의식을 받고 성전에서 맺은 성약을 지키도록 격려되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선교 사업과 성전 결혼을 준비하도록 격려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기대되고 있는가?

교회 부름 이외에 각 회원이 개인적으로 얼마만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에 관한 질문에 대해 우리는 베냐민 왕의 위대한 설교에서 가르쳐진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살아가”(모사이아서 4:26)야 할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난 뒤 그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되 지혜롭게 순리대로 행하여야 하나니, 사람이 제 힘에 거움게 행함이 마땅하지 아니함이라.”(모사이아서 4:27) 마찬가지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몰몬경을 번역하기 위해 애쓰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역할 수 있도록 마련된 힘과 수단 이상으로 급히 서둘거나 일하지 말라. 다만 끝까지 부지런하라.”(교성 10:4)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 지도자들은 회원들에게 영의 속삭임에 따라 그들의 “힘과 수단”에 맞게, “지혜롭게 순리대로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결정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끝까지 부지런하다”면 이 사업은 번성할 것입니다. 이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교회 회원이 그 사업에 경주하고 있는 개인적인 노력의 결과는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계획함에 있어서 우리는 범위에서만 넓은 것이 아니라 기간에 있어서도 일생을 요하는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바칠 수 있는 전체적인 시간과 자원은 상황이 변함에 따라 시간과 함께 변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분야에다 각각 들이는 시간 또한 바뀔 것입니다.

모든 목적에

우리는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전도서 3:1, 6)라는 현명한 가르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 실상을 가르치고 그들의 지도력에서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시기에 교회의 부름을 주는 원리는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데 확실히 큰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복음 선교사는 선교사로서의 그들의 임무 지명에 거의 절대적인 헌신을 바칩니다. 그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적합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법대에 다닐 때 우리는 성전에서 2,200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거의 없었으며 따라서 학업과 자녀 양육이 어려웠습니다. 아내와 나는 매년 여름 유타를 방문할 때에 한해서 성전에 참여했습니다. 나는 신진 지도자들이 내가 성전에 더욱 자주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의식을 갖게 하지 않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몇 년 후 와싱턴 디스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그때 나는 방대한 도서 자료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해에 나는 (교회 부름 이외에) 가족 역사 탐구에 개인적인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도시로 이사를 했을 때 나는 스테이크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으며 나의 우선 순위는 가족 역사 탐구에서 선교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혜롭게 순리대로

현재의 상황에서 “지혜롭게 순리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바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회원들을 격려하는 원리는 교회 행정과 개인 발전에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할당이나 지명은 중요한 원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대부분 모든 정원회나 상호부조회 회원은 월 몇 회 이상 성전에 참석해야 한다고 지명하는 경우를 보아 왔습니다. 과거에 우리들은 대부분 지역 지도자가 특정한 재정적 필요를 위해 와드의 각 회원에게 일정한 금액을 헌금하도록 부과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러한 지명이나 금액 부과는 개인의 상황이나 자발적인 헌금의 정신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금액 부과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헌금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막는 행위입니다.

베나민 왕은 “만사가 어떤 회원에게는 힘에 겨움더라도 수확적인 분담으로 이루어져야 하느니라”(모사이야서 4:27 참조)고 말하지 않았습니 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 또한 “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원리를 가르치고 그런 다음 금액을 부과합니다.”(설교집 10:57~58 참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 다.

요약하면 우리는 다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1) 만사는 지혜롭게 순리대로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회원들에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촉진시키되 주님의 자녀에게 죄의식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성취해야 합니다.

(2) 천하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는 수행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회원들에게 개인적인 상황과 교회 부름을 고려하여 “끝까지 부지런히”(교성 10:4)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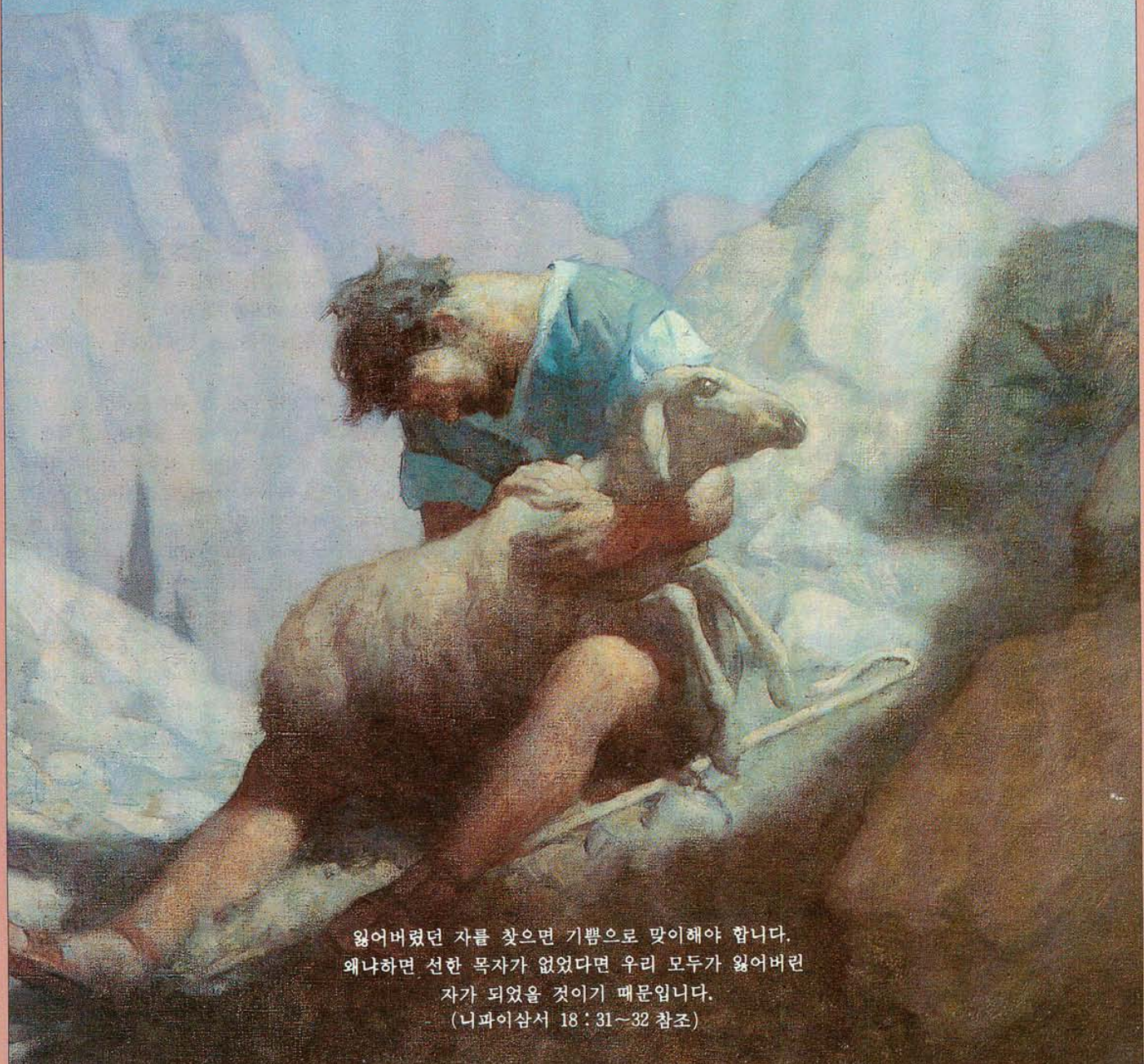
(3) 모든 회원은 교회의 세 가지 사명 즉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죽은 자를 구속하는 일을 평생의 개인적인 과제이며 특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각자는 상황과 자원에 따라 주님의 영의 인도와 신권 지도자의 지시하는 대로 이따금씩 개인적인 참여를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가족 조직을 구성해야 하며 가족 행사를 계획하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기도를 하고, 교리를 배우고, 자녀를 가르치고 살았거나 죽은 친척을 찾아내야 하고 성전 추천서를 받아야 하며 성전을 방문하고 성약을 맺고 의식을 받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인간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도록 돕는 방법을 가르치고 보여 주는 책임을 완수할 때 우리 모두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그분의 사업이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기쁨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누가복음 15:6)



잃어버렸던 자를 찾으면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자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니파이삼서 18:31~32 참조)



평범하지 않은 아이

바바라 비 스미스

모성애의 위대한 중요성이 자주 부인되는 세상에서 나는
구세주의 탄생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베들레헴의 조용한 거리를 걸어 본 일도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푸른 물도 본 일이 없으며 목자들의 들판 너머로 보이는 별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 나는 마리아가 걸었던 길을 이해할 듯 합니다. 그 이유는 나도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린 아이를 팔에 안았을 때의 넘치는 기쁨도 알고 있으며 새로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았을 때 느끼는 경외감도 경험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어린 아기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이 경건한 경이로움 속에서 우리 약 이천년 전에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의 기적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베들레헴 주민들이
천사의 노래를 들었다는
경전상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그 소리를
들었으며 그 소리를
따라 아기 예수가 누여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쉴 곳은 오직 새로운 짚이 깔린 마구간 뿐이었습니다. 해산할 시간이 되었으므로 그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즉시 아기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 생명에 대한 경건심이 자라나는 것을 느낍니다. 출산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어머니는 신앙을 가지고 자신을 내어주며 육신과 영의 고통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겪은 그 경험은 더욱 엄숙한 것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장자 그리스도이시며 인류의 구속주가 되실 하나님의 아들의 불멸의 영을 위한 육신을 잉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오랜 옛날의 그 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느날 밤과 같았을 것입니다. 물론 인구 조사를 위한 집합에 대한 불만은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먹고 이야기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근처에 있는 조용한 들뜰에서 새로운 아기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의 노래가 들렸습니다.

베들레헴 주민들이 천사의 노래를 들었다는 경전상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그 소리를 들었으며 그 소리를 따라 아기 예수가 누여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마리아도 그 음악을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경전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새로운 탄생을 기뻐하여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온 세상이 모든 일을 중단하고 이 새로운 아기를 보아야 한다는 느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대부분의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세금 명부에 추가돼야 할 또 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며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나사렛의 요셉과 마리아에게

태어난 아들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너무나도 작고 무력한 어린 아기를 바라 보면서 그 아기가 평범하지 않은 아기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기가 지닌 위대한 잠재력과 어린 아기로서의 현재의 무력함에 어찌할 바를 몰라했을 것입니다. 잉태의 방법이 기적적이었으며 마리아는 이 신성한 아기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깨닫고는 몸을 떨었을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출생의 신성함을 깨닫게 해주고 인간의 생명이 성장하는 기적을 이해하게 해주는 축복을 줍니다.

모성애의 위대한 중요성이 자주 부인되는 세상에서 나는 구세주의 탄생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친께서 그에게 필멸의 육신을 주셨고 부친께서 불사 불멸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명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양부모 모두의 덕분이었습니다.

출생의 기적에는 영원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류의 영속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영원한 발전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발전하기 위해 영은 육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세상의 남녀 간에 필수적인 동반 관계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가져 옵니다. 자녀를 낳는 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기르는 분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의 정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정화를 위해서는 부모로서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그녀의 아들이 성전에서 선생들과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는 뒤 그 일들을 어떻게 마음에 깊이 새겨 두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의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많은 생각을 품었으며 새로운 아기와 더불어 신앙이 새로 태어남을 알았으며 신앙의 필요성이 자녀의 성장과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행동하겠다는 각오를 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이 탁 트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 즐거운 절기에 느끼는 진실한 마음으로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같은 사랑과 돌보심을 지금 이곳에서 우리로부터 받을 필요가 있는 우리의 자녀와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구세주를 존중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이었던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는 현재 남편 더글라스 에이치 스미스 장로와 함께 홍콩에 거주하고 있다. 스미스 장로는 칠십인 제일 장로회 회원으로서 아시아 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예언자 요셉이 보낸 성탄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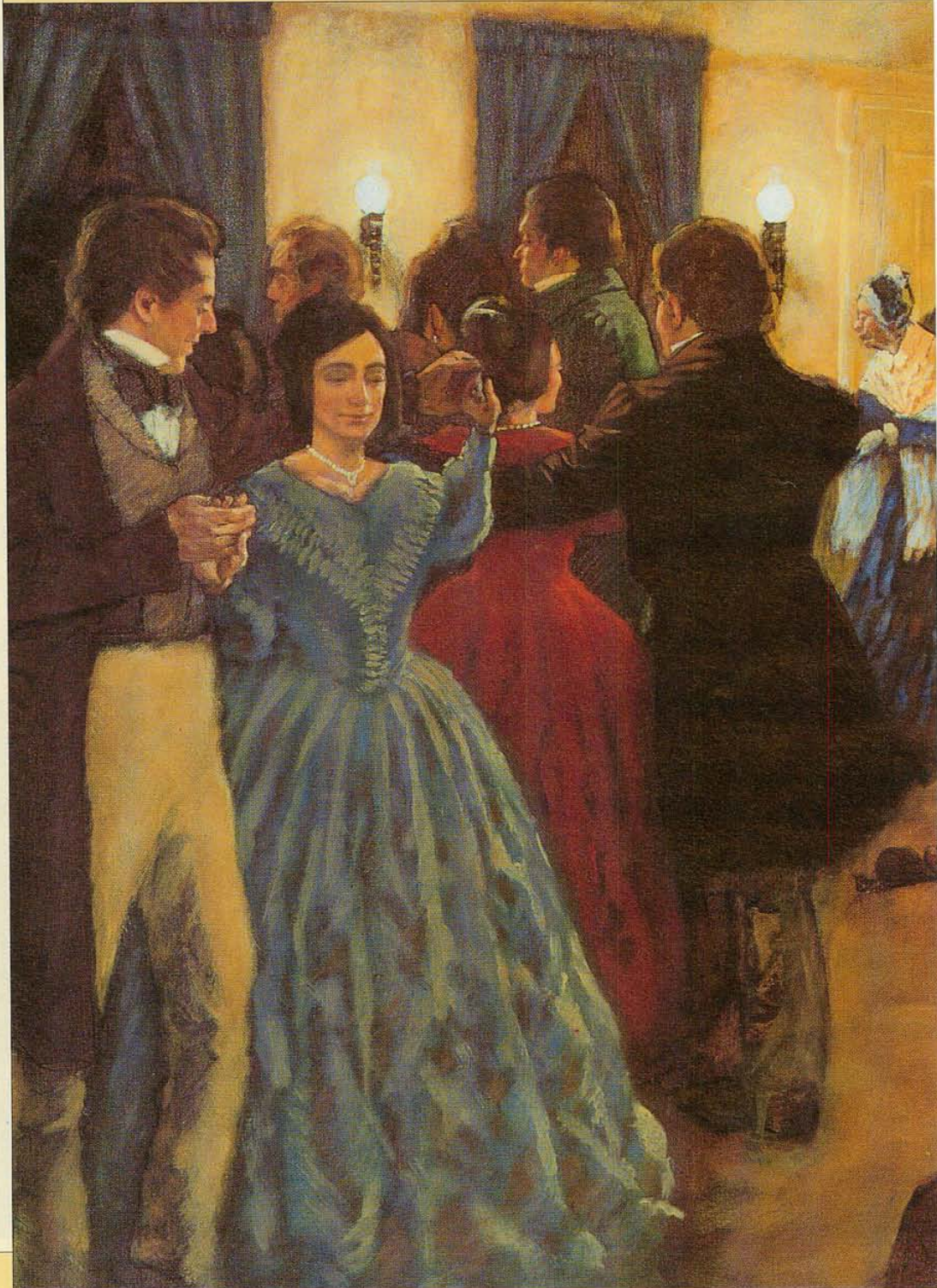
세상의 구세주의 탄생을 경축할 때 우리는 또한 그의 사자인 요셉 스미스를 기억하고 그의 생애와 희생을 기뻐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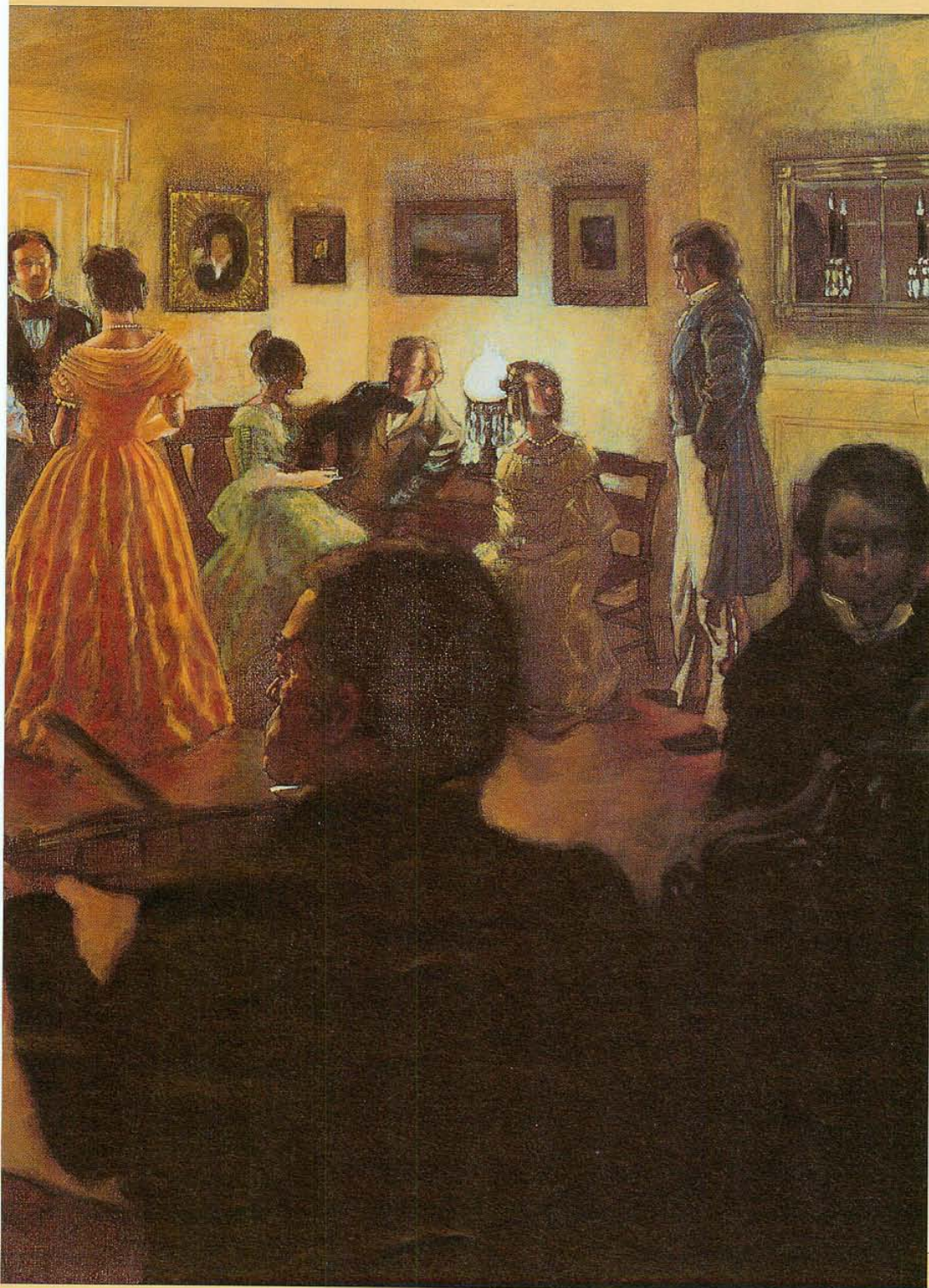
래리 시 포터

기독교 세계에서는 구세주의 생애가 성탄절을 경축하는 일의 핵심이 된다. 그러나 교회에는 성탄절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생애에 관한 기록이 있다.

요셉 스미스는 1805년 12월 23일에 태어난 “크리스마스” 아기였다. 그는 버몬트주 윈조군 쉐론 마을에서 그의 생애의 첫번째 성탄절을 보냈다. 그의 모친 루시, 부친 요셉과 그들의 자녀인 알빈, 하이람, 소프로니아는 전 해에 루시의 부친 솔로몬 맥이 소유한 땅에 있는 오두막에서 살라는 초청을 받았다. 이 아름다운 어린 아기는 그 거룩한 날을 경축하고 있던 스미스 가족과 근처에 살고 있는 외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는가!

우리에게는 요셉이 38년 동안 보낸 모든 성탄절에 관한 완전한 기록이 없다. 예를 들면 요셉이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보낸 성탄절의 기록이 없다. 우리는 그동안 그 가족이 여러번 이사를 했으며 요셉과 루시 사이에 다섯 명의 자녀가 더 태어났으며 가족이 발진티푸스로 고생을 했고 잇단 흉작으로





1843년 크리스마스 때에 많은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예언자와 함께 저녁을 먹은 뒤 “가장 즐겁고 정다운 분위기” 속에서 훌륭한 음악을 듣고 춤을 추면서 저녁 시간을 즐겼다.

재정적인 곤경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뉴욕주에서 보낸 최초의 몇 년 동안 요셉은 새로운 가정을 갖고 첫번째 시현을 보고 모로나이 천사의 방문을 받는 일들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되기는 하지만 성탄절에 관한 기록은 역시 불완전하다. 1823년 11월 11일에 알빈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그해 12월은 온 가족이 슬픔 속에서 보냈을 것이다.¹

1826년 성탄절에 요셉 스미스는 분명히 다가온 엠마 해일과의 결혼에 대해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은 1827년 1월 18일에 결혼하였다. 1827년 12월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즉 1805년 12월 어느 날 버몬트주의 언덕 마을에서 태어난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더불어 시작된 사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요셉과 엠마는 뉴욕주 맨체스터에서 펜실바니아주 하모니로 이사하여 최초로 엠마의 부친 아이작 헤일과 함께 살았다. 그곳에서 예언자는 결국 그가 새로 받은 금판의 글자를 조사하기 시작할 수 있었다.

요셉은 1828년 12월에 펜실바니아주 하모니에서 처음으로 그의 가정에서 성탄절을 보냈다. 그는 아마도 그때까지 죽은 첫번째 자녀와 잃어 버린 116페이지의 물몬경 원고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을 것이다.² 두 가지 사건 모두 그 해 여름에 일어난 일이다.

다음 성탄절에 요셉은 물몬경의 인쇄를 고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번역의 대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조판과 인쇄가 시작되었다.

1830년 12월에 요셉은 뉴욕주 페이에트에 사는 피터 휘트머 일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현재 교리와 성약에 있는 세 편의 계시를 받았다. 이 계시 가운데 하나에서(교정 37:1~3) 주님께서는 예언자와 교회 회원에게 오하이오로 이주하라고 지시하셨다.

1831년 12월 동안 예언자와



시드니 리그돈은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교성 71:2)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 사업을 떠났다. 12월 4일부터 이듬해 1월 10일까지 그들은 오하이오 주민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교성 71편; 교회사 1:23, 8~41 참조)

1832년 12월 25일에 요셉은 이렇게 설명했다. “교회가 광야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한 이래 이제까지의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즈음의 국가간에 치르는 난국의 협상은 더욱 뚜렷해지게 되었다. …[1832년] 성탄절에 나는 전쟁에 관한 다음 계시와 예언을 받았다.”(교회사 1:301~2) 그런 다음 요셉이 받은 가장 광범위한 계시 중 하나인 교리와 성약 87편을 받았다. 요셉은 앞으로 남북 전쟁이 터질 것을 이야기하였으며 그것이 결국은 온 세상으로 확대될 적대감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833년 12월 16일에 요셉은 미주리주 잭슨군 중심부에서 최근에 성도들이 추방당한 것에 대해 슬퍼했다. 그의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게 되었다.

“이는 저들이 범한 죄의 결과로 저들이 겪은 고난을 나 주가 겪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여전히 저들을 나의 것으로 삼으리니, 내가 와서 나의 보석을 장식할 그 날에 저들은 나의 것이 되리라.

“그러므로 저들은 자기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 받은 아브라함처럼 징계를 받고 시험받을 필요가 있느니라.”(교성 101:2~4)

1834~35년 겨울에 요셉은 장로 학교를 조직하였으며(이미 조직된 예언자 학교와 혼동해서는 안됨) 대부분의 시간을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데 보냈다. (교회사 2:175~76)³

1835년 12월은 예언자에게 매우 행복했던 계절이었던 것 같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12월 1일. “집에서…즐겁게 썰매를 탔다. 눈은 아직도 내린다.

12월 18일 그의 형 하이람과 시간을 보낸 뒤 예언자는 그에 대한 큰 사랑을 표현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나의 모든 형제들이 나의 사랑하는 형 하이람과 같았으면 하고 마음 속으로 기도한다. 그는 어린양과 같은

온유함을 지녔으며 욕과 같은 성실성을 지녔다.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함과 겸손함을 지녔다. 나는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한다. 나는 한 번도 그를 나무란 적이 없었으며 그도 나를 나무란 적이 없었다. 오늘 내걸을 떠나면서 그는 그런 말을 하였다.”

12월 25일 요셉은 집에서 간단히 성탄절을 보냈다. “하루 종일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참으로 오랫동안 그토록 만족스런 시간을 가져 보지 못했었다.”(교회 정사 2:232~45)

1836년 12월에 예언자는 미주리주에 있는 교회 회원들의 피난처가 된 캔드웰 군의 설립을 기뻐했다.

그러나 1837년 성탄절은 요셉에게 유쾌하지 못했다. 그해에 있었던 국가적인 경제 공황으로 인해 성도들이 소유했던 은행 제도인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가 파산되었다.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위시하여 많은 회원들이 교회에 등을 돌렸다. 1837년 12월 10일 여행을 마치고 미주리로 돌아온 요셉은 그를 대관장단에서 몰아내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계획되고 있음을 알아 냈다. 1838년 1월 12일에 요셉과 시드니 리그돈은 안전을 위해 커틀랜드를 떠나 미주리 성도들 가운데로 갔다.

1838년 12월까지 미주리주의 교회는 심각한 일련의 사태들로 고난을 겪었다.

요셉과 다른 형제들이 무고하게 고소되어 투옥되었다. 1838년 12월 16일에 미주리주 리버티 감옥에 감금된 예언자는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위안의 글을 썼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들발 사태가 생겼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약해졌다고 생각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있었으며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더 좋은 소망을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짐을 많이 지라고 우리의 어깨를 넓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우리의 영혼을 구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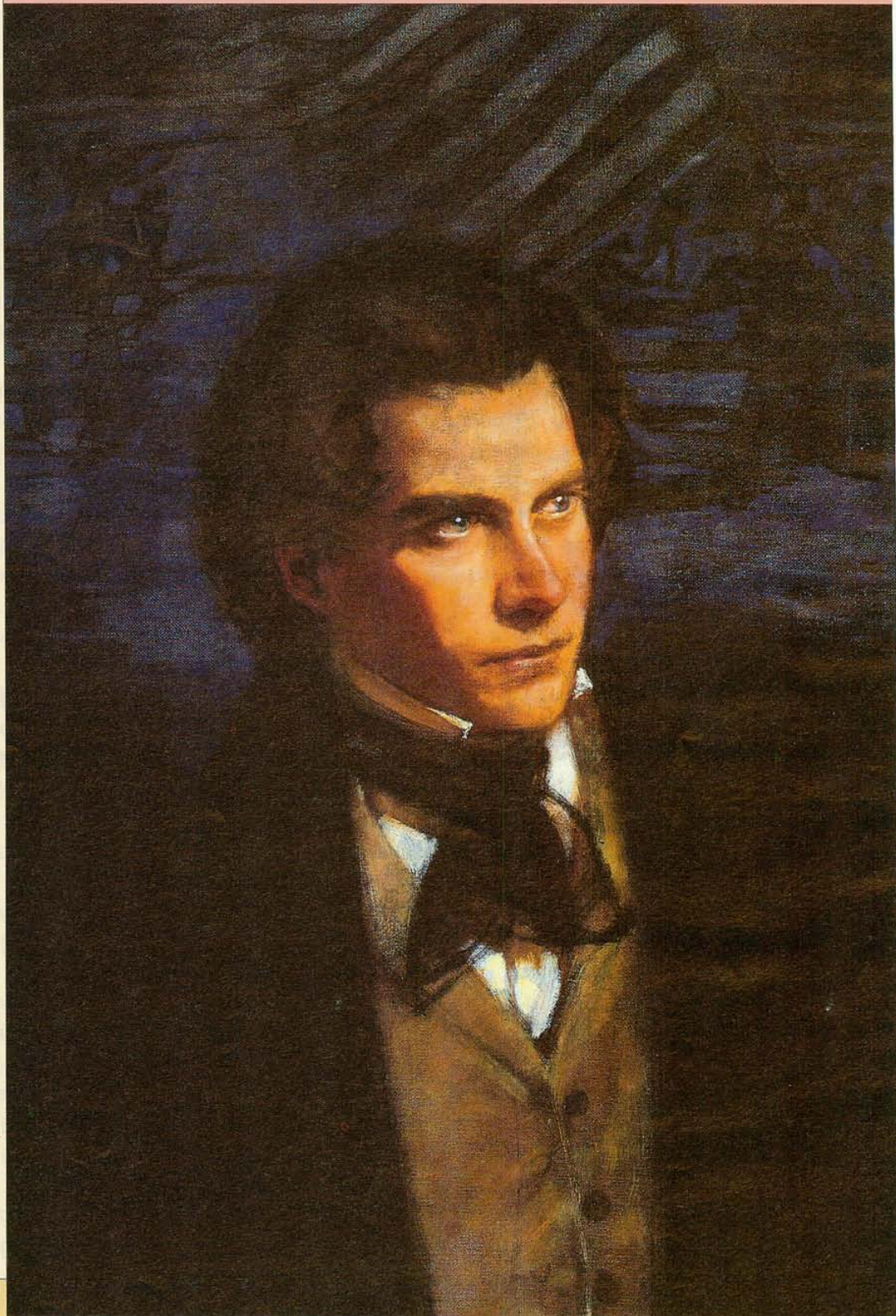
18 32년 크리스마스 때 예언자는 미래에 일어날 미국 남북 전쟁 및 기타 다가올 전쟁에 관한 광범위한 계시를 받았다.

조금도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폭도들이나, 세상이나, 악마나 악마의 첩자인 반대자나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기를 원하여 노력하며 거짓 맹세를 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구해 달라고 애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결코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⁴

미주리주에서 자유의 몸이 된 요셉은 1839년 12월에 와싱턴 디시와 뉴저지로 가서 미주리주에서의 박해자의 손에 성도들이 입은 손해 배상을 청구했으며 복음을 전했다.

1841년 12월에 요셉은 나부 성전 공사에 참여하고 있었을 것이다. 예언자가 보낸 성탄절 중에 아마도 그의 마지막 성탄절 즉 1843년 12월 25일보다 더 유쾌한 때는 없었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오늘 밤 한 시 경에 나는 리차드 러쉬톤 일세의 미망인인 영국인 레티스 러쉬톤 자매(10여년 전에 실명했음)가 그의 세 아들과 자부, 두 딸과 사위, 그리고



요셉

몇몇 이웃과 함께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르는 소리에 깨어났다. ‘인간들이여 깨어나서 천사와 연합하라!’ 그 노래는 내 영혼에 기쁜 감동을 주었다. 우리 가족과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두 깨어나 그 노래를 들었으며 나는 그들의 방문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교회사 6:134)

많은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예언자와 함께 저녁을 먹은 뒤 “가장 즐겁고 정다운 분위기” 속에서 훌륭한 음악을 듣고 춤을 추면서 저녁 시간을 즐겼다. 그때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파티에 불쑥 나타났다. 요셉은 그 사건을 이렇게 묘사했다.

“연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에 어께 너머로 긴 머리를 늘어뜨린 한 사나이가 나타나 거친 행동을 했다. 나는 경찰 책임자에게 그를 밖으로 내보내라고 했다. 트잡이 벌어졌다. 그때 나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가 있었다. 그러나 놀라움과 말할 수 없게 기쁘게도 그는 내가 오랫동안 사귀어 온, 친절한 그러나 잔인하게 박해를 받아온 오린 포터 록크웰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미주리주에서 유죄 선고도 받지 않고 근 1년 간 옥고를 치루고 방금 출감한 것이었다.”(교회사, 6:134~35)

요셉은 더 이상 성탄절을 맞이하지 못했다. 그는 다음 해를 고대하고 있었지만 그의 적들은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 그는 형 하이람과 함께 1844년 6월 27일에 카테지 감옥에서 총에 맞아 순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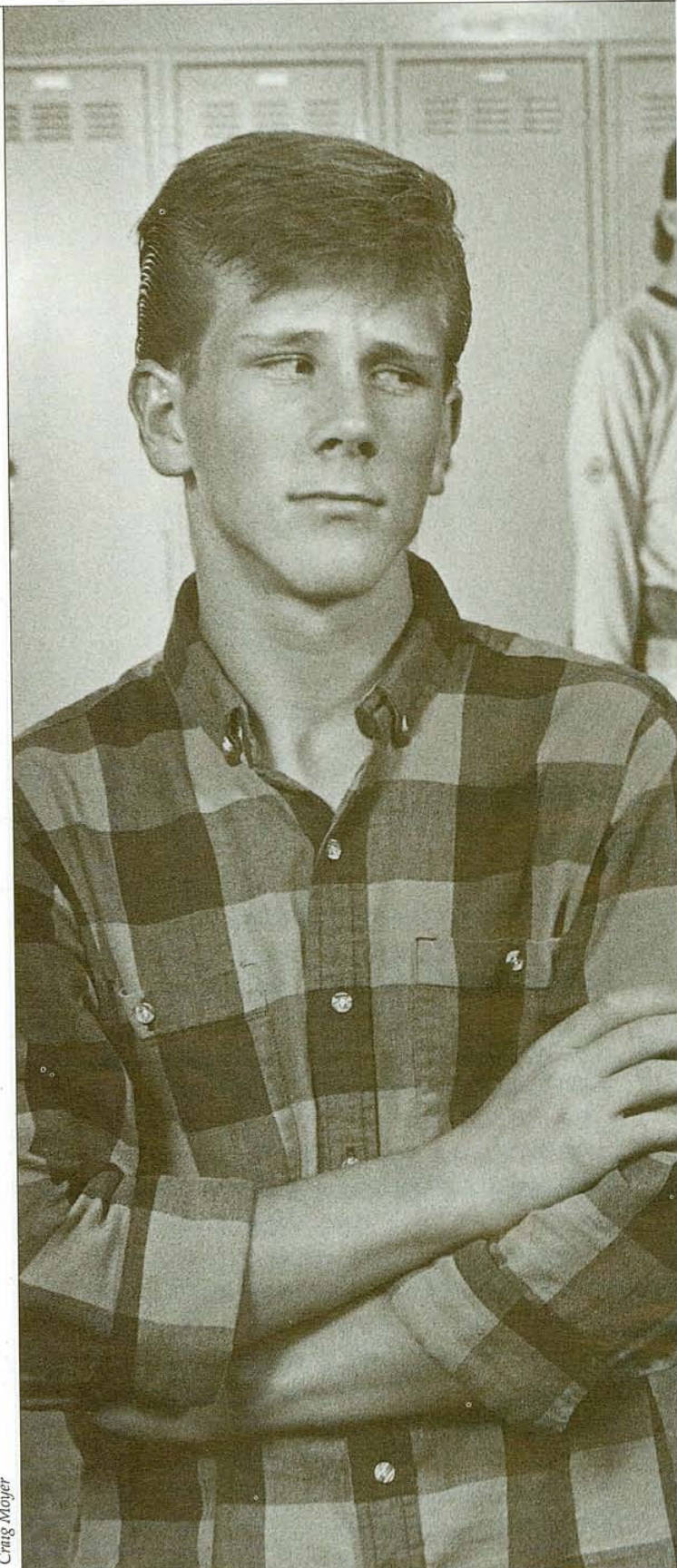
그러나 그가 시작해 놓은 일은 그의 죽음과 더불어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즉 1805년 12월 어느 날 버몬트주의 언덕 마을에서 태어난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더불어 시작된 사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세상의 구세주의 탄생을 경축할 때에 우리는 또한 그의 사자인 요셉 스미스를 기억하고 그의 생애와 희생을 기뻐해야 할 것이다.*

1. 루시 맥 스미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생애, 솔트레이크시티 : 임프르브먼트 이라, 1902년, 321~24페이지. 이 책에는 알빈의 죽음이 1824년 11월 19일로 적혀 있지만 그는 실제로 1823년 11월 19일에 죽었다.
2. 루시 맥 스미스, 410~415페이지, 교회정사 1:20~28 참조)
3. 또한 올렌 키티스 피터슨, 1831~1839년의 오하이오와 미주리에서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학교 및 교육 프로그램의 역사” 1972년 브리감 영 대학교, 석사 논문, 34~37페이지)
4.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19~120페이지)
대리 시 포터는 브리감 영 대학교의 교회 역사 및 교리학 부교수임.

질의 응답

말일성도가 아닌 사람들과 사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하는 교회 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친구들은 물론이 아니지만 착하고 진실되며 나에게 그릇된 어떤 일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들과 사귀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까?



다음 응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교회의 교리를 선언하는 것이 아님.

Craig Moyer



이 질문은 성서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신분이 다르고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간주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사귀다 하여 바리새인들의 비판을 받고 그 문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죄지은 여인이 바리새인들보다도 그를 더 잘 대접했고, 그를 더 사랑했다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7:37~50 참조) 또한

구세주께서는 그들에게 목자는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더욱 기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12~14 참조)

그렇다고 여러분의 비회원

친구들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만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의로운

사람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워드와 스테이크,

지부와 지방부 밖에도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그

안에도 불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의로운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기쁨을

놓치고, 그들의 다른 견해를

무시하고 그들이 복음을

발견하도록 돕는 기회를

놓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이 같은 사람들하고만 사귄다면 우리는 사회인으로서 편협하고 비사교적이며 비정한 사람들이라고 간주될 것이며 어떠한 선교 사업도 행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말일성도 친구들하고만 사귀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사람은 비회원이 여러분에게 끼칠 영향에 관하여 염려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분명히 말일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표준을 가지고 있으며, 때때로 그들의 표준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른 믿음과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믿는 바가 무엇이며, 여러분은 누구이며, 왜 여러분은 그렇게 생활하는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그보다 높은 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대회 보고, 1973년 4월)

만일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이 잡고 있는 쇠막대를 놓으라고 부추키기 시작한다면, 그들이 말일성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행해서는 안되는 것을 하도록 부추키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들을 친구로서 잡고 있는 손을 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가장 행복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친구란 여러분이 계명에 불순종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사람이 아니며,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믿음 그대로 여러분을 받아 들이는 사람입니다.

다음에는 말일성도 청소년들이 제기된 질문에 대해 응답한 몇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교회가 잘 알려진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이 있는 반면 회원 수가 매우 적은 지역에 사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약 47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유일한 말일성도는 나와 우리 가족 뿐입니다. 내가 교회 회원을 보는 유일한 시간은 일요일이나 기타 교회에서 활동할 때 뿐입니다. 나의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나의 종교에 관해 알고 있습니다. 나의 비회원 친구들은 내가 행해서는 안될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열세 명의 형제 자매 가운데 열두번째 자녀입니다. 우리 가족은 항상 교회를 위해 좋은 모범을 보이고 친구들이 우리의 행동을 본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경우에는 믿음대로 생활함으로써 친구들을 위하여 긍정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조ানা 쇼프, 15세

우리 마을에서 나는 비회원 친구와 사귀고 있으며 그들은 내가 말일성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 중 일부는 그릇된 일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나의 표준을 알고 있으며 내가 그것을 어기도록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회원이며, 우리는 함께 많은 일을 합니다. 나는 비회원 친구를 사귀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그들과 친구가 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우리 교회에 관하여 알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비회원인 친구들에게 선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플린트, 16세

나는 비회원 친구를 사귀는 것이 반드시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만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 행사하여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 그들이 여러분의 표준을 낮추도록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그것은 빛, 즉 모범이 되는 것에 관한 구절입니다. 나는 나 혼자만이 회원인 학교에 다녔었습니다. 내 주위에는 학급 친구들이 행하는 일을 하도록 늘 유혹이 있었으므로 학교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어느 면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물론 소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기 위해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아이들과 구별되는 것과 내가 믿는 것에 대해 모범을 보이고 신앙을 옹호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놀렸으나 많은 친구들이 나를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문제는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분별있게 판단하고 표준을 지켜야 합니다.

트레이시 클라크, 17세

그렇지 않습니다. 말일성도가 아닌 사람들과 사귀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중히 친구를 선택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친구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지닌 표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믿는 바를 알게 될 것이고 다른 어떤 것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디 후튼, 12세

나는 말일성도가 아닌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학교에는 약 20명의 말일성도 학생이 있으며, 우리는 모두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교회 회원이 아닌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비회원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비회원 친구들은 내가 행하는 일과 행하지 않는 일에 대한 표준을 알고 있으며 그 표준으로 말미암아 나를 존경합니다.

그들은 내가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결코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며, 나는 그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비회원 친구가 여러분의 믿음을 알고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을 강요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사귀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친구 중에는 내 믿음과는 다른 일을 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나의 참된 친구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 나가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청소년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비회원 친구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인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있으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던 상관없이 어떻게 생각하던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로리 라이빈슨, 17세

그것은 여러분의 친구가 어떤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교회의 원리와 표준을 어긴다면 그들과 사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단지 비회원이라는 것이 그들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라면, 모든 선량한 사람들이 교회 회원인 것은 아닙니다.*

라이라니 호컴, 17세

1985년 4월 연차 대회가 끝난 직후 초청 악단과 합창단이 물론 태버내클 합창단과 협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행사는 녹음이 될 예정이었으므로 많은 장비가 태버내클 안에 설치되었다.

내가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파이프 울겐의 음을 맞추는 일의 책임을 맡았다. 건물 온도의 변화가 이 훌륭한 악기의 소리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공연이 행해졌던 밤은 특별히 무더웠다. 일이 끝난 뒤 저녁의 신선한 공기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도록 태버내클의 문들을 열어 놓았다. 그렇게 해 놓으면 울겐의 온도가 내려가 다음날 아침의 연주때 음을 맞출 수 있었다.

문이 열려 있는 동안 우리도 모르게 참새 한 마리가 태버내클 안으로 날아 들어 왔다. 건물의 문은 닫혔으며 참새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발견되었다.

출근을 했을 때 나는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들은 여러 시간 동안 이 참새를 내어 쫓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동물을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그들은 참새를 잡기 위해 손잡이가 긴 그물을 가지고 왔다.

내가 건물 안에 들어 갔을 때 직원들은 태버내클 안을 앞뒤로 오가면서 그물로 놀란 참새를 쫓고 있었다. 그물을 들고 한 쪽으로 뛰어가면 참새는 다른 쪽으로 날아 가곤 했다.

참새는 파이프 울겐의 큰 파이프 꼭대기에서 건물 뒤로 날아가 벤취에 앉기도 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놀란 새를 더욱 놀라게 할 뿐이었다. 그 새는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문을 열어 놓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동물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공기총을 가져 왔다. 그것을 사유 재산을 향해 쏠 수는 없지만 참새를 잡기 위해 우리 직원에게 빌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는 즉시 그 생각을 중단시켰다. 118년 된 이 건물의 천정은 견고성과 음향 효과를 주기 위해 양질의 동물의 털을 섞은 회반죽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는 그것이 조그만 총알로 손상을 입는 것을 원치 않았다. 단에 설치된 녹음 장비와 악기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위시하여 세에게 총을 쏘아서는 안된다는 실제적인 이유들이 더 있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했던 것은 이 작은 창조물을 죽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었다. 나는 작은 세에게 총을 쏘지 말라는 스펀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의 말씀이 생각났다.

태버내클 안의 참새

로널드 디 존



Ron Stucki

동물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새먹이에 독약을 문혀 놓아 두자고 제안했다. 나는 그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빨리 참새를 태버내클에서 내보내야 했다. 그날 저녁에는 몇몇 총관리 역원과 저명 인사들 및 많은 청중이 건물을 가득 채울 것이었다.

새는 계속해서 짹짹거리며 앞뒤로 날아 다녔다. 그때 나는 만약 이 새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중요하다면 이 새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간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돌아서서 머리를 숙이고 다음과 같은 간단한 기도를 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참새가 아버지 보시기에 중요하다면 그것을 안전하게 이곳에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즉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강한 느낌을 받았다. 기도를 끝낸 뒤 나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들은 건물 내의 모든 불을 다 끄고 모든 창문의 봉장을 치고는 문 하나만을 열어 놓았다.

그때 새는 올겐의 파이프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갑자기 그 새는 높은 곳으로부터 날아 내려와 열린 문을 통해 자유를 찾아 밖으로

나갔다.

참새는 나에게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곤경을 상기시켜 주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곤경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느낀다. 우리는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로 좌절감을 느낀다. 우리도 우리의 날개를 피덕거리면서 소리를 내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날아다니지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새를 사랑하시듯이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면 영감과 나아갈 길을 알려 주실 것이다.*

로날드 디 존은 템플 스퀘어 운영 책임자로 레이튼 유타 홈메스 크리크 스테이크의 레이튼 제니 워드 거주하고 있다.





훌륭한 청년이 되기 위한 목표

전세계에 걸쳐 330,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지난 11월,
 청년 조직 창립 120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했다.
 1869년, 브리감 영 대관장은 그의 딸들을 함께 불러 모은 후 당시 숙녀 절제회로 알려진
 단체를 구성하였다. 브리감 영 대관장이 딸들을 소집하기 위해 사용했던 종은 청년 조직
 창립 기념 축제에서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에 의해 다시 사용되었다.
 벤슨 대관장 및 본부 청년 회장인 아데스 지 캡 자매가
 청년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게 되어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전세계의 청년들이 위대한 자매애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나의 깊은 사랑과 감사를 알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터전 위에 서서 미래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구세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 준비하여 하나님 왕국의 책임을 당당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적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하십시오.
 물문경을 읽을 결심을 하십시오. 그 가르침을 적용하여 악마의
 간계를 당당히 물리칠 수 있는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도록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신권 지도자들과 함께 새로운 결심으로 세상의
 일을 제쳐 두고 종소리를 나와 함께 울려 주시기를 권유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힘을 합쳐 진리와 의를 위해 나아갈 결심을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
 자매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빛 밝혀 주님 이름 찬양”하는 생활이 되도록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진리와 의를 위해 나아갈 때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한 부름이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가운데), 아데스 지 캡 자매(왼쪽) 및 1869년 청년
 절제회를 창설한 브리감 영 대관장으로 분장한 연극 배우 제임스 에립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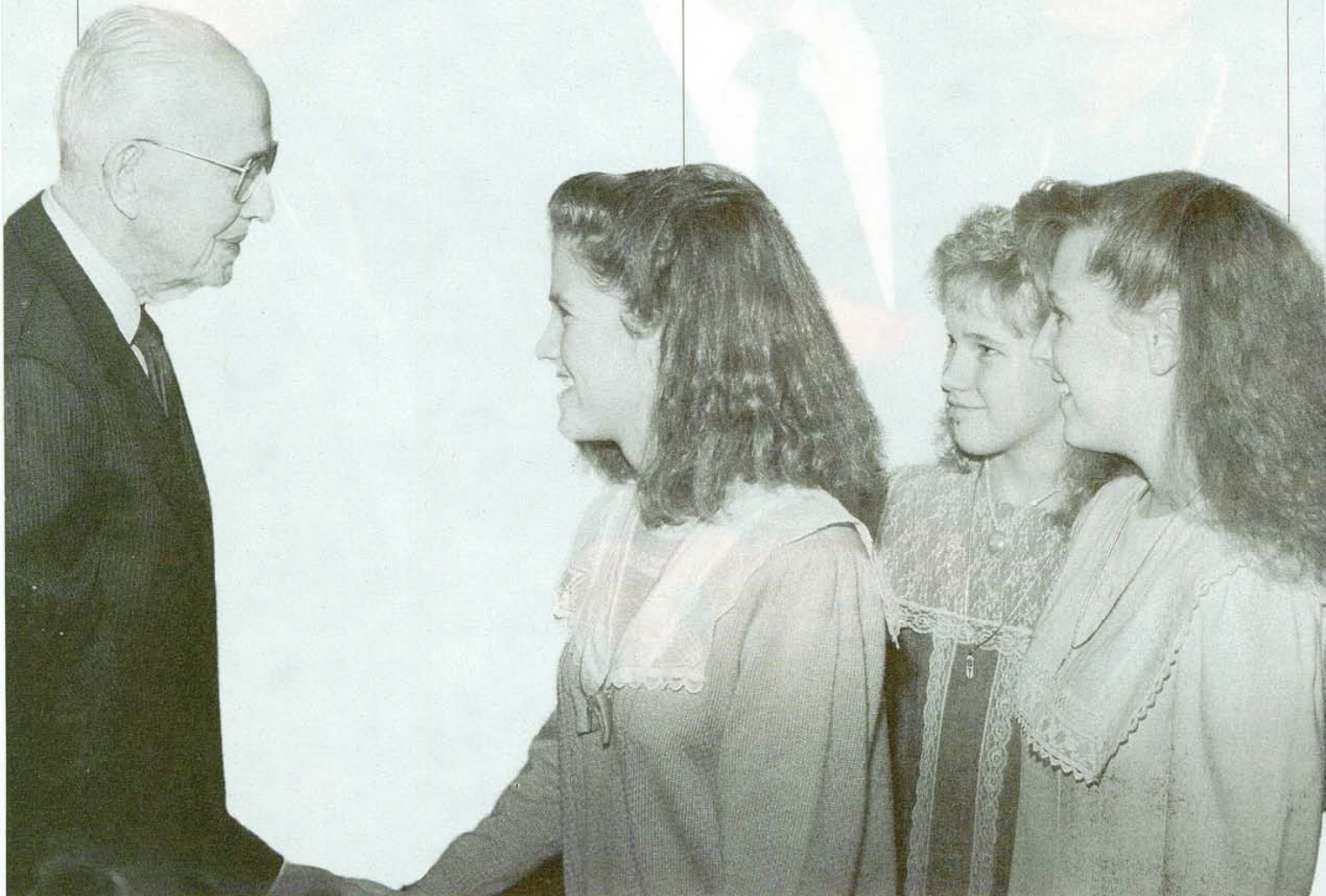


“진리를 위해 나아가십시오”

아데스 지 캡 청녀 회장

이 시대는 평범한 시기가 아니며 여러분은 평범한 청소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대륙과 바다를 넘고,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 장벽을 넘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할 것을 다 함께

결심함으로써 결속된 하나님의 딸로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는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라이온 하우스에서 1869년 11월 28일 있었던 최초의 청녀 조직 창립 120주년을 기념하여 진리와 의를 위해 나아갑니다. 그날에 위대한 예언자요 지도자이신 브리감





“여러분은 말일에 주님의
충실한 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청년들’입니다.”

영 대관장님은 선반에서 가족 기도 종을 꺼내셨습니다. 그분은 크고 분명하게 종을 울려, 그분의 딸들을 특별한 모임에 함께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청년들이 맡게 될 중요한 역할을 교회의 역사 초기에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내다 보셨던 것입니다. 청년들이 발휘할 수 있는 큰 영향력과 헌신을 바라보고 그들이 당면하게 될 어려움을 미리 아신 그분은 주체를 확립하고 전세계의 자매애를 도모할 조직, 즉 청년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조직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본받을 모범을 보이고… 진리에 대한 산 간증을 얻고… 스스로 복음에 대한 지식을 얻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힘과 권능으로 단합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그 조직은 숙녀 절제회로 알려졌습니다. 청년들은 이 조직을 통해서 대관장을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선행을 함에 서로 돕고 지지하며… 세상의 교만과 어리석음과 유행을 흉내 내서는 안되며, 다른 사람을 본받기 보다는 그들에게 모범을” 보일 것을 스스로 다짐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 조직이 처음 시작된 이래 12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청년에 관한 희망을 품고 계신 우리 시대의 예언자요 지도자에게서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은 보통 젊은 여성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영으로,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유혹과 책임과 기회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이 시대에 태어나기 위해 거의 6,000년이나 기다려 왔습니다.”(“자라나는 세대에게”, 뉴 이라, 1986년 6월호, 4페이지)

벤슨 대관장님은 전세계의 청년들에게 거룩한 잠재 능력에 따라 생활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누구이며 여러분이 받은 거룩한 유산을 생각하고 여러분은 사실상 하나님 아버지의 귀중한 딸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스럽고 영화로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이 때가 찬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지상에 오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특별한 시대에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영원전부터 예입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말일에 주님의 충실한 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청년들’입니다.”(“교회의 청년들에게”,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106페이지, 111페이지)

오늘 아침 우리는 지부, 지방부, 와드 및 스테이크에 속한 청년, 부모 그리고 지도자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브리감 영 대관장님께서 치신 바로 그 가족 기도종이 다시 한 번 크고 맑게 울려, 전세계의 청년들이 살아 계신 예언자,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의 말씀에 귀기울이도록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본부 청년 회장단을 대신하여, 우리는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의 지도자이신 위대한 예언자의 부름에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께서 벤슨 대관장님이 청년들에게 제시하시는 사명을 지지하시고 성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난 예언자를 만난 적이 있어”

칼라 샌섬

“모세가 살아 있다면 자넨 그를 하나님의 예언자로 받아들이겠나?”하고 내가 물었다. “물론이지, 의심할 여지가 있겠나”하고 친구가 대답했다.

“만약 그가 현대인의 복장을 하고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면 어떨겠나? 만약 그가 남편이요, 아버지요, 그가 사는 나라의 성실한 시민이라면 말일세?”

나의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다. “모세가 다른 사람과 같을 수가 있겠나. 그는 모세야, 예언자야, 하나님과 대화한 예언자란 말일세.”

나의 친구에게 모세는 그가 살던 시대의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나의 친구는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변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나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난 예언자를 만난 적이 있네. 그는 존경받는 사업가였고 훌륭한 남편이고 아버지였으며 헌신적인 한 국가의 시민이었네. 난 비록 어렸을 때 그분을 보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네”

내가 예언자를 만난 것은 1937년의 독일 함부르크에서였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판장은 유럽 선교부를 순방하고 있었다. 나의 가족이 속한 교회의 지부는 인구가 조밀한 공장 지대의 뒷골목에 위치한 비누 공장의 현관을 세내어





모임을 가졌다. 이곳에 독일의 북부와 서부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언자를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

우리 지부에 있는 재능있는 한 시인이 그 모임을 위해 긴 시를 썼으며 그랜트 대관장을 맞이하기 위해 그 시를 낭송할 사람으로 내가 선택되었다. 예언자가 방문하기 전날 밤 어머니께서는 내 방으로 오셔서 나에게 잘 자라고 인사를 해주셨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일 하나님의 예언자와 악수를 하겠지. 얼마나 큰 특권이나. 그것은 분명 네가 간구한 신앙 때문일거야.”

어둠 때문에 어머니가 나의 괴로운 모습을 알아차릴 수 없어서 다행이었다. 어머니가 방을 나가자마자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언자를 만나기에 합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했다. 어머니는 그날 밤 늦도록 내가 입을 아름다운 옷을 만드셨다. 어느 때 같으면 이것은 보통 마음이 들뜨는 일이 아니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예언자가 나의 마음 속을 들여다 볼 수 있으며 나의 죄와 허영심을 알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보낸 시간은 마치 악몽 같았다. 벽에 걸려 있는 커다란 시계를 볼 때마다 나는 나의 잘못을 회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에 대해 공포를 느꼈다. 내가 평소 때 보다 너무 조용히 있자 친구들은 내가 아프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비밀을 알리기 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드디어 시간이 되었다. 그랜트 대관장을 영접한 뒤 나는 그에게 줄기가 길고 커다란 장미 꽃다발을 드리고 나서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시를 낭송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랜트 대관장 앞으로 걸어나갈 때 내 발밑의 바닥이 흔들거렸다. 나는 숨을 쉴 때마다 기도를 드렸다. 이제는 그의 앞으로 걸어 나가는 수 밖에 없었다.

그랜트 대관장은 나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 나셨다. 그는 마치 산처럼 크게 보였다. 그의 다정한 눈은 나의 눈을 깊이 응시했으며 그는 팔을 뻗쳐 나를 끌어 당겼다. 나의 몸은 마비가 된 듯했으며 나는 꽃다발을 떨어 뜨리고 말았다. 그랜트 대관장은 몸을 숙여 꽃을 집어 드셨다. 그리고 나서 나를 안아 준 뒤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 내가 순서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

갑자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는 형용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 나는 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친절하시고 민감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분의 예언자가 그와 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나는 참된 예언자를 식별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에게 보여 주는 사랑과 관심에 의해서이다.*

칼라 샌섬은 자유 기고가로서 뉴베리 파크 캘리포니아 스테이크의 웨스트레이크 빌리지 워드에 살고 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말하길 나와
동침하자 하니 그는 옷을
그녀의 손에 두고
달아났습니다. (창세기
39:11~12 참조)



매우 중요한 성구

엘리자베스 카트렐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아름다운 9월 어느 날이었다. 바야흐로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는 날에 나는 벌써 고등학교 및 신학연구원 중등부 학습 과정을 완전히 끝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나는 여러분이 이 성구에 별 표시를 하기 바랍니다.”하고 나의 세미나리 교사인 이라이어슨 형제가 말했다. 그것은 창세기 39장 9절이었다. 나는 기계적으로 그 성구에 표시를 하면서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의 부분을 강조하셨다. 우리는 계속 12절로 넘어가서 “...도망하여 나감에” 부분에 표시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가장 자리에 별 표시를 하였다. 그것은 이라이어슨 형제가 정한 표시로서 “매우 중요한 성구”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요셉이 처한 상황과 그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도망하기 위하여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했는지에 관하여 들려주었다. 요셉은 그가 미리 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서 이라이어슨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여러분이 평생 동안 한 가지 성구를 기억하 있다면, 이 성구를 기억하십시오.”

곧 그날이 지나갔고, 그 주일과 그 달, 그리고 그 해가 지나갔다. 나는 대학교를 다닐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은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진단이 나온 이후 완전히 변경되었다. 나는 어머니와 의붓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에게 필요한 병원 근처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로 이사했다.

의붓 아버지와 나는 교대로 어머니를 병원으로 태워 드렸다. 의학적인 치료를 받는 동안 어머니는 심하게 앓으셨으며, 머리카락도 모두 빠지셨다. 어머니는 첫번째 남편과 사별했을 때 뿐만 아니라 나의 의붓 아버지와 결혼해서 두 가족을 함께 단합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온갖 어려움을 이겨낸 강인한 여인이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약해지신 것을 보니 매우 낙담이 되었다.

나는 어느 지방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집을 떠났다. 내가 론을 만나게 된 것은 바로 그곳에서 였다. 그는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친구였으며 우리는 곧 언제나 함께 있게 되었다. 그는 총각이었지만 나이가 많았고 멋진 자동차와 집 외에도 보트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다.

우리는 함께 너무도 많은 즐거운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을 때에는 집안의 문제들을 쉽게 잊을 수 있었다. 그는 나와 함께 교회에 정구적으로 나오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곧 그는 우리가 밤을 함께 지낼 것을 제안해 왔다. 나는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종교적 신념에 관해 그에게 들려주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친구가 필요했으므로 나와 그와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그와 만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연약하고 세속적인 사람이 되었으며 영의 속삭임을 경시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유혹에 가장 약해진 상태에서, 나는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시작했다. 나는 론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으며, 그가 나를 보살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갑자기 그의 품 속이 매우 안전하다고 느꼈다. 그때 나는 머리 속에서 “...도망하여 나감에”라는 목소리를 들었다. 나는 것처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 구절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러자 그 목소리는 더 크게 다가오는 듯했다. “...도망하여 나감에” 다시 생각할 것도 없이 나는 문자 그대로 그 방과 그 상황에서 벗어나 도망하여 나왔다.

머리 속이 정리되었을 때, 나는 내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실수를 저지를 뻔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사탄이 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위해 내 감정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알 수 있었고, 한 구절의 성구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구했는지도 알 수 있었다.

나는 가끔 이라이어슨 형제가 어느 평범한 가을날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의 영향력을 알고나 있었는지 궁금하다. 나는 그에게 감사하며 또한 론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에게 감사 드린다. 그리고 나는 경전의 말씀, 특히 내가 이처럼 잘 기억했던 그 성구에 감사드린다.*

동 방에서 별을 따라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하고 물었다. 그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자 그들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선물들 드렸다. (마태복음 2:1~12 참조)
